

主
教
要
旨

全



芥子園畫傳

原八種十三種縱三十三種
謄文草書體ノ木版本ナリ

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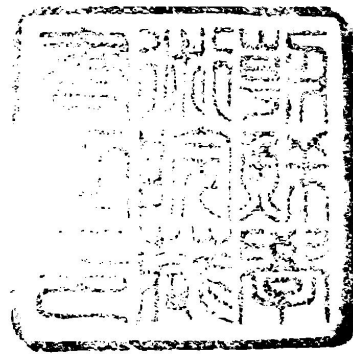
감목

백요왕

감춘

원주강선인원화팔빈구팔십오년

중간



230
주.림

18663

주요요지상편목록

인심이 스스로 견주게 신줄을 아누나라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누나라

만물^이절노되지 못하누나라

하늘이 음죽여도라 감을 보고 견주게 신줄을

알지나라

사람이 반두시 견주로 말미암아 삼져나누나라

견주게 오직하누나라

견주게 본디 계시고 스스로 계시나라

견주게 시작이 업스시고 무스춤이 업스시나라

목록

古 1882
1

련쥬 - 지극히 신령한 사형상이 엮느니라
련쥬 - 안니 제신곳이 엮느니라

련쥬 - 무궁히 능하시니라

련쥬 - 온전이 알으시느니라

련쥬 - 무궁히 아롭다 오시고 또 하시니라

련쥬 - 세워시 오호테시니라

르뽕^르하느님이 련쥬 - 아나니라

련디가 스스로 말물을 능히 배지 못하느니라

우항상 테라 호노말이 허망하느니라

부처의 보살이다 련쥬의 배신사름이니라

색가여리가 스스로 현디간에 흘노늬다. 흠이지
구히오망흐니라.

불경말이다. 허망흐야 밋을 거시 업느니라

사름이 전성과 후성이 잇셔 사름이 죽어 증승이

되고 증승이 죽어 사름 된다. 말이 허망흐니라

불경에 현당디옥의 즐거움과 그로움을 의로움

이다. 보르그흐말이니라.

불경의 말이 두가지로 나니 밋을 거시 업느니라

불도의 상벌마련호법이상업느니라

두드흐야 부쳐 되엿다. 말이 허망흐니라

부처의도 - 라 호는 거시 현주의도와 같지 아니
호니라

잡지신을위호는 거시 큰죄니라

현주 - 반다시 착호이를생주시고 악호이를벌
호시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령혼이 잇서 생과 벌을 밋느니
라

령혼이 반다시 풀거옴과 그로옴을 밋느니라

三三

현주 - 현당의욕을두사세상사공의천악을시

힘을 야감하시느니라 三四

디옥은련당과마즌쪽이되느니라 三七

하천목록

련주 - 벗서만에련디만물을내시니라 四二

제상이본대도려니사롬의처음조상이련주의

특죄항매도련제상이고로위지고착호사롬

이다그릇되벗느니라 四三

련주 - 강성호야사롬이되샤본제상사롬의죄

로구호시고속하시니라 四八

예수 - 다시살아나신후스십일에하늘에올라

목록

三

가시 나라 六十

예수 | 하늘에 오르시던 발자취가 있는 나라

六五

십자가의 기묘한 능력과 신령한 자취 무중무진한

나라 六五

제상이 못출때에 천주 예수 | 다시 내려오사 천

하고 금사름들을 다 심판하시느 나라 六六

천주 | 강성하신 심을 불힘이라 七四

천하 사름이 흐름 못하야 아담의 죄를 만민이다

무들고 예수의 공을 만민이다 노아 나라

七九

현주교로인행하기 어렵다말을못할지나와

一

사람이현주교로드르면즉시밋어봉행할지나

라 八四

주교오지생편

인심이 스스로 현주제 신줄을 아누 나라

프릇 사름이 하 놀을 우러러 보매 그 우희 남주 | 제
신줄을 아누 그로 질 통그 난을 당흐면 앙 현 추 수 흐
야 면 흐기 룬 브 라 고 번 키 와 우 례 룬 맛 나 면 주 괴 죄
악 을 성 각 흐 그 모 음 이 놀 남 그 송 구 흐 니 만 일 현 상
에 남 주 | 아 니 제 시 면 엇 지 사 롬 마 다 모 음 이 이 러
흐 리 오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누 나라

현디 만물이 제물이 스스로 나노 일 이 업 서 초 목 은

별 뒤 잇셔 씨를 전히 고 증승은 어이 잇서 삼져 나고
사름도 부모 | 잇서 삼져 나니 그 부모는 조부모의
게르나 논 지라 초 초 울 나가면 분명이 시작 할야 난
사름이 잇실 거시 나 이 사름을 뉘가 나 핫실고 이 사
름도 부모 | 잇서 나 핫다 할면 그 부모는 뉘가 나 핫
실고 처음으로 난 사름은 부모 | 업시 낫실 거시 나
그 사름은 제 몸을 스스로 나 핫다 할라 그 걸진대 이
사름만 저 | 스스로 낫코 후 사름은 스스로 나 지 못
할라 일노 밑위여 보 견대 처음에 난 사름은 분명이
내 신이 가 계실 거시 나 사름 할나 할가지고 의론 할

면초목과 증승도다 그리 하여 처음난 초목은 초목
이 초목을 나흠이 아나 오처 음난 증승도 증승이 증
승을 나흠이 아나 초목과 증승과 사람을 도모지
내신이 가지시니 내신이 룬현주 - 리날오느니
라

만물이 절노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큰집이 잇시니 아래기 동을 세우고 우희들보
룬언고 법희는 백을 맛초고 압희는 문을 내여 뽕우
룬마리 위야 사람이 몸을 담아 현안이 잇시니 이 집
을 보면 엇지 절노되엿다 흐리오반 드시 목수 - 잇

생현

二

저문드랏다호리라만일호사름이이집을보고닐
이되기동과들보와트벽과문창이절노어올녀되
엇다호면이사름을지각이업다닐을지라던디도
호호집과곳호야하논노넙고싸호로식고일월노
세계를복하고비와이슬노초목을기르고물노축
이그불노더히고나논새논공중에논고피논증승
은싸희피여만물을다비호호고마련호엇기애사
름이그중에잇서하논을니고싸흠복고말물을쓰
고형안이살아마치집을짓고형안이잇슴과곳호
니적은집도절노되지못호야반드시공고호장인

이잇서야 되거든 이련디 못흐 큰집이 잇지 절노 되
리 오분명이 지극히 신통하시 고 지극히 능히 신이
가 계셔 문드라야 될 거시 니 장인을 보지 못흐 여도
집을 보면 집지은 장인이 이잇는 줄을 알 거시 오련 주
를 보지 못흐 여드련 디를 보면 련디 문드신 님 주
계신 줄을 알 지 니 라

하늘이 음속 여드라 감을 보고 련 주 | 계신 줄
을 알 지 니 라

온갖 거시 지각과 손발이 잇서야 능히 음속 이고 지
각이 업스면 음속 이지 못흐 논고 르사 롬과 증승은

지각이잇기에움족이그흠과들은지각이업기에
움족이지못하니그중에지각이업고도움족이
거스반드시지각이잇는이가잡고흔들어야움족이
는고로흠과들은지각이업셔도지각이잇는사람이
구을니면움족이그문리와슈리는지각이업셔도
지각이잇는사람이잡고들니면움족이니녀하논과
히와돈과모든별이커와눈이업고손과발이업고
흔과지각이업는디능히날마다움족여드라가고
셔드라가되일년호법이잇서춘하추동이차례로
드라오고주야한쳐고로계호여천백년이되

드루고도라가논도수 | 호발도틀니지아니하니
지각업논거시엇지스스로도라가며도라간들엇
지절노도수에마즈리오분명이지극히신령하고
지극히능함이가잡고들녀야도라갈거시나이도
라가게하시논이논곳년주 | 시니그런고로문리
외.슈리의도라감을보면터하논도년주 | 제석들
니시논줄을알지나라

사롬이반드시년주로말미암아삼겨나누니
라

호사롬이므루티취음으로난사롬은년주로말미

생현

四

암아 낮거니와 즉 금사름은 부모의 속으로 조차나
니련쥬 | 아니 계신 들엇지나지 못흐리오되 답흐
되처음 사름을 천쥬 | 아니 내여 계시면 즉 금사름
이어되로 조차나리오 부모의 능으로 노즉식을
낮치 못흐니 날은 양이면 장인이 그릇 슬 제저 조로
문돈기에 임의대로 흐여 문돈녀 하면 문돈고 말녀
하면 말고 크게 흐려 하면 크게 흐고 적게 흐려 하면
적게 흐니 사름이 즉식 낮키를 장인의 그릇 문돈
시 제저 조로 흐진대 즉식 낮키를 임의대로 흐거시
어 놀엇지 흐야 낮고 시 버드 낮치 못흐노이도 잇고

아들을 낳고 시베르도살을 낳고 잘 낳고 시베르도몹시
낳고 고이롤보면 사롬의 능이 아니라 려주의 조화
로 하시느 줄을 알거시오 오장인은 그릇을 제쳐조
로 문돈기에 그릇문둥은 보리를 알거니와 사롬은
죽식을 나하드그 되느 보리를 취가아는 그만일알
양이면엇지 하야 이목구비가 되며 오장류부-됨
을 모르리오 다 려주의 령하 신슬의 로마 려하심이
나라

려주-오직 하나히시 나라

흔집에가장이 하나히 오하느 고을에 판장이 하나히

이런저런 감수 - 하나 히오한다 각의 감수 두가
하나 만일 한데 두 관장이 잇시면 그 일의 관
지아날 거시오 한도에 감수 - 둘히 잇시면 도의 일
이 되지아날 거시오 하나 라히 두 감수 이 잇시면 나
라히 어스러울지라 한데 도 감수 이 하나 히시
나 만일 두 감수 이 잇다 하면 된다 과연 할지라 이 감
수 이 한데서 히로 둘 나려 하면 감수 이 둘 둘
나려 하면 이 감수 이 둘 이 되게 하면 감수 이 거
우늘 이 되게 하면 이 감수 이 둘 나려 하면 감수 이 두
이려 할 거시오 엇지 세 상일이 되리오 이 세 한데

양식호로가고너름이될새에느너름이되고저을
이될새에느저을이되고불은티양업그물은티양
초그물은물은나코사롬은사롬을나하련디기벽
호후로이날까지일녕호법이잇쳐만고에박고이
지안나호니반다시호남금이제쳐마련호시기에
온갓범이다호물스로나느지라그럼으로이사롬
을살나려호면다시죽일이업고너사롬을벌주려
호시면다시생줄이업느니라

련주 | 본티계시고스스로계시니라

호사롬이므로티만물이절노나지못호야다련주

생현

六

1 내여 제시 다 하니 이련 주는 뉘가 내엿는고 뒤답
후 뒤 만일련 주를 번이 가 잇게 되면 번이 가련 주
되고 밧아 난이논련 주 | 되지 못할지라 이 제 날 곳
논바련 주는 조차 난 뒤 업스시고 본디 스스로 제 신
지라 대개 스스로 제 신자 하니 히 잇서야 만물이 다
조차 나 누나 나무로 비호면 남흔가지에 석나고 가
지논 줄기에 석나고 줄기는 쉼희에 석나나 쉼희는
남과 가지와 줄기의 근본이 되는지라 근본의 소근
본이 잇지 잇시 리오수로 비호면 만은 천에 석나고
천은 빙에 석나고 빙은 열에 석나고 열은 하니 희서

나니 흐나 혼만과 천과 벽과 열의 시작이 되노지라
시작에 시작이 잇엇지 잇시리오 현주는 나무 열의
못흐샤다시 열의 업고 수의 흐나 못흐샤다시 시작
이 업노니라

현주 | 시작이 업스시고 못춤이 업스시니라
온갖 만물이 다 내신이 가 잇노고로아 모태에 내자
흐면 나쳐 시작이 잇고아 모태에 업시흐자 현면 업
쳐져 못춤이 잇시되 오직 현주는 본디 제쳐아 모태
에 내자 홀이 업노고로 시작이 업고아 모태에 업시
흐자 홀이 업노고로 못춤이 업스시니라

현주 — 지극히 신령한 사형생이 업스시 나라
만물이 형태잇는 거슨 현하고 현태업는 거슨 귀호
고로 초목과 짐승은 형태잇기에 천호류 — 되고 사
롬의 령혼과 현상의 현신은 형태업기에 귀호류 —
되논 지라 이 제 현주 — 높흐시고 귀호심이 사롬과
현신에 처한 량업시 더흐시기에 더욱 지극히 순전
하야 얼골도 업스시고 모양도 업스시고 소리도 업
스시고 내암새도 업스시고 오직 신령하시 나라

현주 — 아나 제신곳이 업는 나라

현주의 형상 업스시고 령호신태 무한한 사 온전이

하늘에 계시고 온전이라 하시니
만물에 계시고 온전이라 하시니
엇지 할야 그런 줄을 알나오
하늘을 본도실 제는 당
신데 하늘에 계시거시오
새롬도실 제는 다희 제
실거시오 만물을 본도실 제
는 만물에 계시거시오
본데 무궁히 크시매
천디 밋과 무궁히 되도
계시니라

천주 — 무궁히 능하시니라

므릇 사롬은 능이 한이
잇서 무슴그릇 슬본도
녀
하면 반도시
마음을 가지고
변장을 쓰고
힘을 슈고

히향고색물허비흐후에야그로시되뒤턴주는능
이무궁향샤턴디만물을문두시뒤마음업시공중
에셔내시고연장업시화성향시고힘을조곰도슈
고히아나향시고색물허비치아나향샤흐번명향
시매경극스이에일우시니만일이턴디에셔너크
고크모흐턴디를무수히문돌녀향시면흐번만명
향시매될거시오또이턴디만물을모도업시향려
향시면흐번만명향시매업서지리각이런고로그
능이무궁향시다닐이그나라

턴주-온전이알으시느니라

현주 - 임의 무궁히능 신주반드시 온전히알의
실거시니 대개 현디 만물의 만능은 모든 무궁히
슬피로몬적알으쳐야 무궁히능으로만두실거시
니 만일 무궁히아지 못하시면 무궁히능을 얻지베
크시 리오그런 크로 만물의 크고적음과적함고추
흙과집고얕흙과무누흔키신의 만일함무영과와
만 사람의 숨은뜻을다스 못쳐복이알으사 호말도
속일길의 얽고도억만세이 전일과억만세이 후일
이전후의 만일함의 버러잇는 크로그알의 심이 무궁
히시 다닐이노라

련주 | 무궁히 아름다 오시고 또 흐시 나라

련주 | 엇지 흐야 무궁히 아름다 오시다. 날은 노
대개 련주의 문 두 신 만물을 보면 알 거시니 하늘의
굽고 너름과 일월의 빛나고 북음과 석의 바다의 두
텨고 겁 흠과 초목 금슈의 변화롭고 만흠과 각석과
묘호 빛과 소리와 각종 괴이 흐 맛과 향내와 현상에
무수 흐련신의 신통 흠과 석우 희무수 흐 사람의 령
명 흠과 쇠상만 가지 영화와 만 가지 즐거움이 다 련
주익로 좃차 낫시니 이런 만물의 만 가지 아름다 음
을 련다 리 백후로 보러 련다 못출 때 석지 날 마다

내시고히마다내사무궁무진하니당신본테안희
반드시무궁하신아름다움이잇실지라비컨대정
승환석의영화로온복과감스병스의부키흐즐거
음이다님금의손으로번그로정승환석와감스병
스의영화부키흐음이다님금의몸에싸히엿시니백
관의부키흐음을보면님금의지극흐부키로알거시
니만물의아름다음을보면천주의무궁히아름다
오심을알지니라

천주 - 세위시오호테시니라

므릇사람이복은거울에빗치면거울속에그얼플

상천

18663

이나고 또 사롬이 무음에 흐가 지 거슬 스랑흐면 무
음속에 그 스랑흐는 정이나 나 나련 주도 이 러 흐 샷 무
시 브 러 그 무궁히 아 롬 다 온 헤 무궁히 북은 무음 가
온 대 빛 최 여 절 노 무궁히 아 롬 다 오 신 얼 끝 이 나 제
시 나 얼 끝 이 임 의 당 신 얼 끝 이 오 또 지 극 히 아 롬 다
오 시 기 에 절 노 무궁히 스 랑 흐 는 무 음 으 로 무 궁 히
아 롬 다 오 신 정 을 받 흐 신 지 라 사 롬 이 거 울 에 빛 최
여 나 는 얼 끝 은 거 울 에 의 지 흐 그 림 주 션 이 오 무 음
속 에 스 랑 흐 여 나 는 정 은 무 음 에 의 지 흐 어 림 션 이
라 그 림 주 와 어 림 이 다 잠 간 잇 는 거 시 오 헛 거 시 로

디련주는 본디 무궁히 능히 신성이시오 그 복은 신
얼골과 그 사랑하시니 마음이 곳그테시라 그 복은
신얼골과 그 사랑하시니 정이 싹호그테와 갓치 살
으시고 진실하시니 그 본테하시오 그 얼골이
나히시오 그 사랑하시니 정이 싹호나히시기로 세
위라 날으니 그러나 세 위라 말은 려 주의 테가 세히
아 나라 위는 비록 세히라도 그테는 오직하시
라 그 얼골과 그 정이 도모지호련주 본테안히제시
니 그 빛최시니 얼골이 곳그테시오 그 사랑하시니
정이 곳그테시나 세 위 곳치호테시오 호형이신고

로세위굽고나증과크고적음과몬적와나종의분
별이업나나라도세위몬적와나종의제신분별의
츠레노업스나츠레의천후—제시나그본테노아
비라본이그그말붙인본테에저난고로아돌이라
닐으고그아비와아돌이저로사랑하샤그사랑하
시는무음으로말하신이노성신이라닐으나사롱
은아비무음이아돌의무음에스무리무하고아돌
의무음이아비무음에스무리무하노거슨그무음
이각각이오형테에결나노연고—어니와현주의
사랑하시는무음은그러치아나하샤부스—한테

시 오도 그혜가 형용이 업스시기에 아버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서로 형혜에 절나논 거시 업시 스모
차 성신을 말하시니 형신이 라 말은 지극히 착하시
고 형용이 업스신 사랑을 닮음이 니라

드러나논이 현주 - 아나니라

흐사롬이 드러나니 새사롬이 미양 드러나논을 위
러러 보면 절노공정함이 나니 드러 드러나
논이 현주 - 아나니라 밝히 드러나니 하
논을 보고 공정함이 나니 하논을 공정함이 아
나오하논이 제신님을 공정함이 라 비컨디 백성

이대철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철노 두려워하느니
엇지대철을 두려워하느냐 하리 오대철에게 신님금
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트룬하논은 대철코고 하논에
제신년주노대철안희잇는님금코하시니 만일 트
룬하논을 현주 | 라하야철하면이노대철을보고
님금이 라하야철함파코하니 엇지그르지아나하
리오하논은 현주의전능으로만두신거시니 비견
대사롬이집을지으며 엇지집을마르쳐남즈 | 라
하리오집을지은사롬이남즈 | 됴파코치현주 |
하논을지어제시니 하논의남즈 | 되시느니라

하노이 너르그르르러 큰류리녕이르흐야 귀와는
 이 엄고손과 발이 엄고지 각도 엄고령신도 엄스니
 엇지 현지만 물의 님즈 - 되리 오 현디의 큰 님즈는
 오직 호나히시니 하노을 님즈 - 라 호면의 하노이
 아 흠점이 잇시니 엇지 현디의 님즈 - 아 흠이 되리
 오

현디가 스스로 만물을 능히 내지 못호스니 라
 호사 롬이 무르디 하노과 석히 잇서 만물의 부모 -
 되니 엇지 현주 - 제석 만물을 내여 제시다 호리 오
 디 답호디 온갓 거시 귀와 르흐 거슬 낫고 제에 석나

은거슬낫치못호노고로성귀잇노초목이초목을
나흐뒤지각잇노증승을낫치못호고지각잇노증
승이증승을나흐뒤령신잇노사룸을낫치못호노
니이련디노산거시아니나엇지성귀잇노초목과
지각잇노증승과령신잇노사룸을나흐리오그림
으로비유컨대화원이그림을그리려호면반드시
조희와쳐석을가지고그리노니만일조희와쳐석
이아니면그림이되지못호거니와그려호나엇지
호갓조희와쳐석이그림을그렸다흐리오반드시
화원이잇서그렸시니이제만물도호그림못호야

사흔 조희곳고하놀은 처석곳고만물은 그림곳하
 니화원이아니면 조희와 처석이엇지 절노그림이
 되며 천주ㅣ아니시면 하놀과 사히엇지 절노만물
 을몬돈나오그런고로 사람이던디 일월성신을행
 하야 절하논 거시대단이그룬지라 비컨애 부모ㅣ
 즈식을위하야 집과년답을작만하여주거든 즈식
 이집과년답으로산다하야 그집과년답을향하야
 절하고 집과년답을주신 부모의은혜노성각지아
 니하면엇지그루지아니하리오 사람이만일던디
 와일월을내신 천주의은혜를모르그던디 와일월

을 행하여야 진영이면 이 집의 천둥을 행하여야 진영의 부
어 시나루리오

우 황상테라 호크말이 허망하니라

한 나라 새에 장 의 라 호노 사 례 이 잇서

이 장 의 호 소
진 이 의 호 새

장 의 가 아
나 나 라

상업노 신천도 출을 호노라 호너니 죽은

후에 그테즈들이 말호디스승이 신천되엿다 호고
거짓말을 지어낸지라 그후 송나라 남금휘종이 상
업노 신천도 출을 호화 호야 장의를 위 호고 돕혀 우
황상테라 일흥 호야 봉 호엿시니 천하에 잇지 이런
총재 호 일이다 시잇시 리오 천디 간에 천주 상테오

직하나 하시나 엿지 세쌍 사롬을 상테라 일흠음호리
오비견대호나 라희남금이 오직하나 히어 놀만 일
범인을 마르쳐 남금이 라호면 그 죄악이 엿지 크지
아니호리 오장^의 눈볼과 호사롬이 라 그 주는 후천
어년의 옥황산테라 날 마르니 이 눈범인을 마르쳐
남금이 라 날 곳은 죄에서 만비나 너호니 그런으로
회^종이 성전에 천주의 벌을 맞아 그 나라를 망호고
그 몸이 몹시 죽으니 엿지 후세의 증계호바 | 아나
리 오세속 사롬이 그러호 줄을 모르고 옥황상테라
날 크롬이 엿지 대단이 그르지 아나 호리 오

부침의 보살이다 천주의 내신 사 례 이 나라

시작 업시 본 뒤 제 신 자 1 호 나 히 잇 쳐 야 만 물 이 다
그 리 로 조 차 시 작 호 야 나 는 지 라 온 갓 물 건 이 스 스
로 나 지 못 호 고 절 노 잇 지 못 호 는 고 로 천 디 간 에 무
수 호 만 물 과 커 신 과 사 례 이 다 천 주의 무 궁 호 신 능
으 로 삼 겨 나 고 호 나 도 절 노 난 거 시 업 스 니 녀 부 침
의 보 살 도 호 호 천 주의 내 신 사 례 이 라 그 부 모 의 속
으 로 나 처 령 호 니 잇 고 육 신 이 잇 서 우리 사 례 과
호 지 라 아 모 사 례 으 로 의 룬 호 지 라 도 그 중 에 조 끄
더 능 호 고 조 끄 더 착 호 나 불 과 사 례 의 능 이 오 사 람

의착함이니 엇지 사롬이 사롬 우희 넘히 소사나
천주의 무궁하신능과 무한하신 착함의 만분지일
이나 비히리오 흐물며 부처와 보살은 제상에 잇실
제천주의 드으심을 엇지 못흐엿시니 무슴 착함이
잇시리오

척가여리가 스스로 천디 간에 흘노 넘다 흠이
지극히 요망하니라

하늘 우와 하늘 아래 오직 천주 | 제셔그 넘흐심
이 한량업스샤 다시 우히 업고 그 귀흐심이 지극히
샤 다시 썩이 업스니 하늘 우희 천신 곳치 넘흔이의

세상에 사롭스치귀흔이 드^다뉘얍희는 지귀히천
흐고 지귀히나 자용이 되고 빅성이 되거늘 석가여
리노 불과 지천흔 사롭이라 그 어미속으로 삼겨나
치크게 소리흐야 왼손으로 하눌을 무치고 올흔
손으로 석흔 무치켜 올이 뒤하눌 우와 하눌 아래오
직나 - 흘노눔하로라 흐엿시니 슬트다 그 부모도
녀에 서눙고 그 님금드녀에 서눙고 또 부모와 님금
우희 무궁히 눙흐신 뉘 - 제시거늘 이 곳치 쾌악
흔말을 감히 입으로 내니 뉘하만고에 이런대 죄인
이다 시잇나 나마치흔마을에 밋친 사롭이 잇쳐소

리질너를이디체상에나 | 홀노좁하로라할거늘
그마음미우호빅성들이그를을부면치아니하고
이밋친사롬압희업디여황공호야님금으로섬기
면그나라참님금이듯고그죄를엇더케다스릴고
반다시그밋친사롬을역적으로다스려버힐거시
오그섬기년빅성들도호가지로죄벌을남을거시
니슬프다이죄석가를밋고섬기년사롬들이죽은
후에그령혼이년주압희가쳐반드시역적섬기년
죄를이긋치당호리라

불경말이다회망호야밋을거시업스나라

므릇사롬으로더브러말호매별말에아홉말이밋
브다가호마더거긱말을드루면전에아홉말을다
의심할지라이제불경말은별말에혹호말이리에
당호뜻호나거긱말이아홉이나되노거슬엇지호
야밋노그불경안희거긱말이무수호되다분변치
못호고대강의론호노라불경에닐은뒤피와물과
큰싸히다부척의모음속으로삼져낫다호니이싸
혼현디키벌호싸에현주－신통호신능으로문드
라내신거시오부척노키벌호후여러천년만에삼
져나시니천년후에삼져난부척아엇지천년전에

잇는 석을 내었다 하니 오십 사람의 능으로 모래하
나 흙은 두리벌 수업은 지라 부쳐도 십호 사람이니
엇지 무음속으로 퇴와 물과 석을 문 두리벌 능이 잇
스리오

사람이 전성과 후성이 잇어 사람이 죽어 증승
되고 증승이 죽어 사람이 된 다 말이 허망하니라

현주 - 이 세상 에 사람을 내사 호번 죽은 후의 평행
의 착함과 악함을 결단한 사후 현 당에 올나 시고 후
디옥에 나 리오 시니 호번 평행 신 후에 호 평 당에 잇
노 혼 이 다 시 세상 에 나 리지 못 호 고 디 옥 에 잇 노 혼

도도호호체상에나오지못호는지라마치하논의의
와별이싸희나리지못호고싸희희의들이하논에
오루지못호과곳호는나사롭이전성과후성이잇실
양이면현당다옥에잇던령호이다시이세상에와
능히사롭이되야야그러타홀거시어논엇지사롭
이런주의명령을거스리고제임의로다시사롭이
되리오런주-무한호신위엄과공의제신고로사
롭의흔을제임의대로오고가게아니할실지니부
최의몸이전신과후신이잇서척가여리의몸이아
마타불이되엇다말이현하에최무명나호고도다

로 사람의 전성 후성이 잇서 환도 할야 증능 된다 말
이다. 사망 하니 다 사람 이 죽은 후에 육신은 썩어
흙이 되니 환성 할 노일이 잇슬 양이면 응당 련흔이
환성 할 지라. 련흔이 여러 세 상을 지 내 고 만흔 일
을 적 거 보았 시 니 그 중에 전성 일은 생각 할 이 잇슬
거 시 어 노 련 디 리 베풀 후로 어 노 사람 이 능히 전성
의 부모 잇던 줄을 생각 할 며 전성의 형명이 무어 신
줄을 괴 롭 후 나 나 사람 이 니 짐 이 험 후 다 호 들 제 부
모 의 성명을 얻 지 니 제 버 리 리 오 전성이 업 노 고 로
전성 일을 생각 지 못 후 나 나 사람 이 환도 할야

증승된 다말이 만만히 망하니 사름이 만일 증승이
되여 개도 되고 쇼도 될 양이면 몸은 개물골과 쇼물
골을 씻실지라도 혼은 사름의 혼이 박혔시니 응당
사름 못치령은 개의 령 혼 쇼가 잇스렸마노 체상에
쳐 사름과 못치령의 혼 개와 쇼를 뒤가 본이 잇느냐
비컨대 칼은 칼집에 박고 활은 활집에 박아야 처로
마즈리니 이 제 사름의 혼은 사름의 몸에 박아야 맛
고 증승의 혼은 증승의 몸에 박아야 마줄지라 만일
사름의 혼을 증승의 몸에 박을 양이면 이는 칼을 활
집에 씻고 활을 칼집에 쏘즘과 못하니 엇지 서로 마

주리오셔일흥짓기어려오니증승이라하자하니
 사람의흔이잇고사람이라하자하니증승의몸이
 잇시니무어시라일흥하리오세상형벌은죄인을
 다스려그죄를다시못짓게하거논녀환도하니말
 은그러치아니하야음형하던사람은죽어도야지
 가되그살인하던사람은죽어흐랑이가된다하니
 음형죄로너러온증승이되여너욱음형하게하
 고살인죄로모진증승이되여너욱살성하게하
 면이논죄색을처음이오그죄를벌함이아니니
 하에엇지이러케상업년형벌이잇스리오호사람

이므로 뒤이 말을 드르니 과연 환도 홀리가 업거니
와 후사 됨으로 서슴승된 거슬 본이 가 잇스니 이 노
엇진 일인고 뒤 답호디 눈으로 보노 거 손다 밋을 길
이 업고 리로 생각호는 일은 밋브니 비전대 눈으로
히를 보면 경반만호고 리로 생각호면 이 사희쳐너
크니 눈의적어 빔을 밋어 야을호나 리르커 빔을 밋
어 야을호나 사마키가 사름을 속이려호면 사름의
눈을 얼의여도 접을 보려 업노 거슬 보게호고 적은
거슬 크게 호나 엇지 리에 당치아닌 일을 눈으로 만
보고 밋으리 오설스 눈으로 환성호는 거슬 보아다

호여 드리 에 당치 아닌 거슬 밋을 길 이 업 거 든 호믄
며 호으로 참 본 이 드 업 서 이 사 례 은 녀 사 례 의 말 을
듯 고 녀 사 례 은 쓰 다 룬 사 례 의 말 을 드러 츄 전 와
호야 호 사 례 도 분 명 이 본 이 노 업 스 니 이 런 허 탄 호
말 을 밋 을 거 시 엇 지 엇 스 리 호

불 정 에 현 당 디 욱 의 즐 거 음 과 고 로 음 을 의 본
호 이 다 모 로 고 호 말 이 라

사 례 이 죽 은 후 에 욱 신 은 무 녀 에 서 엇 고 령 호 은 후
현 당 에 올 나 즐 거 음 을 누 리 고 후 디 욱 의 노 려 고 로
음 을 밋 이 의 현 호 인 현 상 이 업 서 체 상 욱 신 으로 밋

논고락과 다루거논이 제불경에 흐옛시 뒤죄인의
흔이 디우에 누려갈 노젓고 퉁으르혀고 가마에삼
논다 흐니 유형흐몸이 잇커야 갈과 퉁으르혀고 가
마에살풀거시어 논몸은 무덤에잇고 다만 유형흐
령흔만들어갓시니 어뒤로잡고 버려압흐게 흐며
무어슬가마에너고살마드점게 흐리오흔이 입의
무형흐니 오직무형흐벌이라야 맛당흐니 라셔
방에극락세계가잇다 흐니 이논석가 버리의성장
흔씩흔닐몸이라 그나라흔쳐역국이니 도흔씩히
아나라인심이 극악흐야불상흐고 죽게된사름을

도라보지 아니 할야 꾸식 할중도 주지 아니 할디오
히려 증증의 늬은 것 과 병든 거 슬 두루 츠 먹이 고
구원 할야 병이 나 으면 껍게 보너 고 죽 으면 석 의 못
거 놀 다 룬 나 라 사 롬 이 피 이 히 다킬 무 르 디 증 증 을
이 러 게 증 히 다킬 입 은 무 슴 일 인 그 디 답 할 디 전 성 에
후 사 롬 으 로 환 도 할 었 는 가 할 야 이 리 할 노 라 불 호
디 그 러 할 면 사 롬 으 로 처 환 도 할 었 는 가 다킬 여 이 증
승 은 스 랑 할 고 었 지 죽 금 살 아 잇 는 사 롬 은 스 랑 치
아 니 할 나 나 그 사 롬 이 디 답 을 못 할 고 붓 그 러 블 너
갓 다 할 니 이 러 할 인 심 이 다 시 어 디 잇 시 리 오 이 션

아니라 가난¹⁰² 사람이 주식을 나하엿어 먹이기 어렵
고 혼인의 허비음을 어려이 너 여 짐 주 주 여 글 인 되
너 1 가 내 집에 삼져 나 처 가 난 하니 너 주 금 주 어 부
귀 혼 집에 다 시 삼져 나 변 네 복 이 된 다 하니 이 환 도
흔 다 말이 죽 노 아 히 의 제 득 괴 와 칼 이 되 니 슬 드 다
현 하 에 이 런 악 작 흔 일 이 엿 지 다 시 잇 스 리 오 블 상
호 사 롱 을 박 뒤 호 고 쥬 주 식 을 주 이 호 이 런 호 영 악 가 영
나 리 의 무 송 구 락 호 일 이 잇 관 뒤 여 괴 사 롱 들 이 모
로 고 처 방 구 락 세 제 에 나 기 룬 원 호 나 엿 지 가 련 치
아 니 호 리 호

불정의말이 두가지로 나니 밋을 거시 업스나
라

대개 아모일이라도 호불스르말호여야 밋을 거시
어논이 제불정의말은 두가지로 훗터져나니 호불
경에 노현당디 유이 잇다 호고 호불정의노현당디
유이 업다 호며 호불정의노현회류드 - 잇다 호고
호불정의노현회류드 - 업다 호며 호불정의노세
제네 히라 호고 호불정의노세 제무수 호다 호나 여
노말이 거숫말이며 어노말이 참말이 보신 석가여
리주를 배에 테즈다 려닐오티 너평성에 호말이 호

나도 믿을 거시업다 호엿시니 살앗살애에 호말의
밋어조차야을 호나 죽을애에 밋지말나 호말을조
차 호호야야을 호나 호세제만타 호호말이 호강하
호호나 천주의 무궁 호신능으로 억만세제를돈
너 호시편어렴지아나 호디 호세제의 호호고
이세제밖고나 다시세제업나 비견대 천주 1억
만태양을돈너 호시편지구히치오디 호태양이
있어 호호고 호하늘에 두태양이업나 리호부처
들이 이세제일을아지 못호야 말이 이러타도 호고
더러타도 호나 다른세제가잇호지 업호지 저 1억

지알니오

불도의 상벌마련호법이 상업수나라

불정에닐호디세상사롭이부수호적악을짓고도
죽을때에나무아미타불호소리로호면악만죄악
이법쳐져극락세계로간다호니나무아미타불여
숫클즈에무슴괴묘호뜻이잇고그소리호마디에
무슴능과덕이잇서그호소리로원만죄를업시호
고극락세계로가게호노고그결진대세상사롭이
몸슬노릇호기무어시어려오리오평성에몸슬노
릇슬슬도루호다가죽을림시에남불호소리만호

면도흔세제로갈거시니 무어슬 두려움을빌을못
흐리오진실노이러흔양이면착흔사롬이슈고로
이공부흐야부슬엮고몸슬놈이한엮시죄를지어
드관제치아니흔지라이말은년년이착흔사롬으
로착흔공부에게어루게흐고몸슬사롬으로몸슬
일에방자흔게흠이나엇지착흔일을권흐고몸슬
놈을증제흐는도리되리오

득도흐야부쳐되엇다말이허망흐니라

흔사롬이브루되엿가도비록천주의내신사롬이
나세상에처착흔공부를다가득도흐야부쳐되

엿시니 엿지허망타닐은 고귀답호되련주노련
디의큰님금이 되시고 큰부모 1 되시고 만가지선
의근본이 되시니 세상에 쇠뇌가그님금과아비로
모르고 무슴착호일어잇스며 무슴도 1 리호리오
이제부쳐노님금과아비로셈기지아닐뿐아니라
도로허무한이좁호신련주의위를참남이해야사
련주의문두신련당디옥의권을제손에잡앗노라
호야련하사롬으로저를셈기그저를좁히리호주
무궁히아람다으시고 무한이좁호신련주를떨시
호야저의테즈 1 리호이니그런참남호죄와방사

홍패호젯시련디리벽후에엇지다시잇스리오
련주 | 디옥을비관호심은반드시이런잡류로변
호려호심이아니냐저 | 반드시마귀와호가지로
디옥에들어가무궁무진호형벌을밧을지니이런
홍악호죄인을엇지두도호엇다호리오

부처의도 | 라호노거시련주의도와긋지아
니호나라

호사롬이므루디부처의죄악이비록중호다호나
부처의사롬마긋치노법이련주의도와긋호야련
당디옥의말과착호일을권호의몹을일호는정호제호

이잇스니 그도 뜻을 좃는 거시 스스호을 치아니 호야티
답호티 봉황도 날리잇고 보리퀴도 날리잇스니 봉황
과 보리퀴가 못다 호랴아 모일이라도 못호중애크게
다름이잇스니 세상에 역적이잇서 님금의 옷슬 남
그 님금의 자리에 안갓거든 미욱호사름이그 님금
과 못호모양을보고 그 압희가 절호고 첨저 충신노
릇살호면 역적의게 충신이 될스록 참 님금의게는
더욱 역적이되노지라 이 제부쳐를 첨저 공을 세울
스록 현주씨 더욱 죄를엇으며 부쳐를 위호야 더욱
착호스록 현주씨 더욱 원슈이 되노지라 부쳐를 위

호노 사 례 이 일 성 에 덕 을 닦 았 신 들 엇 지 현 주 의 디
옥 형 벌 을 드 망 호 며 현 주 | 벌 호 시 노 사 례 을 부
취 와 보 살 이 능 하 구 호 야 내 겿 노 야 므 롯 사 례 이 저
물 을 엇 으 려 호 면 반 드 시 부 자 의 게 구 호 여 야 엇 을
지 라 이 제 부 취 를 향 호 야 부 을 구 호 나 너 부 취 가 오
히 려 화 앙 을 면 치 못 호 엇 거 니 엇 지 농 의 게 부 을 주
리 오 그 런 고 로 부 취 의 게 부 을 구 호 은 마 치 벌 어 먹
노 사 례 의 게 돈 을 구 호 못 호 나 라

잡 귀 신 을 위 호 노 저 시 큰 죄 나 라

호 고 을 에 관 장 이 호 나 히 오 호 도 에 감 스 | 호 나 히

오호나라 의민이 호나히나호고일을 사름이 두관
 장을 섬기고 호노도 너빅성이 두감스론 섬기고 호나
 라 신하 - 두님금을 섬기면 그 죄가 만번 주어 도앗
 잡지 아니리니 이제 현디 간에 호님조 - 제 신줄을
 임의 알고 호일 변으로 잡키 신을 위 호야 소위 군왕
 과 말 명과 제 장과 제 석과 천주와 영등과 성황등을 불
 을 섬저 곳도 호고 제도 호야 부을 빌고 화를 면고 제
 호는 사름이 엇지 두님금 섬기는 죄를 당치아나호
 리 오호인간의 성스와 화복이다던 주역미이 엇노
 지라 잡키 신은 도모지 화복의 권을 잡지 못호 엇시

나엿지 사름의 화복을 능히 입의 대로 하의 오

련주 | 반다시 착흔이 룰 상주시고 악흔이 룰

벌흔시 노 나라

련주 | 지극히 북으 시고 지극히 능흐 시고 지극히
어 지 시고 지극히 엄흐 시고 지극히 공 번 되 시 나 반
두 시 사 립의 착흔 거 슬 상 주 시고 악 흔 거 슬 벌 흔 실
지 라 지 극 히 북 으 신 고 르 사 립의 착 흔 과 악 흔 을 입
으 실 거 시 오 지 극 히 능 흐 신 고 르 상 벌 을 입 의 주 로 하
실 권 이 제 실 거 시 오 지 극 히 어 지 신 고 르 착 흔 이 룰
스 랑 흐 사 상 주 실 거 시 오 지 극 히 엄 흐 신 고 르 악 흔

이로써 뉘워흐샤벌흐실거시오지극히공변되신고
로상과벌을반드시고르게흐실지라이러므로체
생을비치흐후에착흐사롬이흐나도련주의생을
밧지아니흐이업고몹슬사롬이흐나도련주역벌
을밧지아니흐이업나니라흐사롬이므르디그러
흐면엇지흐야이체상에착흐자도빈궁흐이만
코악흐자도부키흐이만흐나디답흐디체상의화
복으로사롬의천악을잡흐길이업스니사롬이체
상에잇스매처음은착흐다가나종에그로이도잇
고처음은그르다가나종에착흐이도잇스니죽은

후에야 착흔이다시 그르지 못흐고 그룬이다시 착
흔지 못흐리라 만일이 세상에 서 사람의 천악을 잡
흐려 하면 사름이 모른 착흔일을 행거든 부귀를 주
엇다가 리일 그른일을 행거든 부귀를 빼앗고 그 후
에 다시 착흔거든 부귀를 다시 줄양이면 혼 사름의
부귀를 천벌이 나 주엇다가 천벌이 나 빼앗슬
거시 니련 주의 상벌을 시는 법이엇지 이러 투 시어
즈러 오시 리오 또 사름이 죄를 짓다가 드 그 후에 다
시 곳치는 일이 잇스니 만일 죄를 짓노다 하야 큰 벌
을 주어 죽게 하면 그 죄를 다시 곳칠 길이 업슬 거시

니련주의어지신뜻이엇지그려호시리오사룸의
 원악이성전에결단이업노고로련주 | 상벌을녕
 치아니호시고호세상의복은수가한녕이잇고착
 훈사룸은수가녕훈거시업스니비건대훈나라정
 승의수노세히오정승훈염죽훈이노수가열히나
 되면엇지정승세자리를가지고착훈열사룸을다
 못치정승을식이리오훈고을에제물이만금이잇
 고만금이점죽훈사룸은돌이나세히되면엇지훈
 만금을가지고두세사룸을만금지못치노화주리
 오그런주이사룸을존케하면반두시녀사룸이

천을 거시오 이 사람을 가음 열게 하면 반 두 시녀 사
름이 가난 할 거시니 세상 부귀로는 모든 착한 사람
을 잡 하 고 로 게 할 길 이 업 고 또 죄악 의 크고 적 음 을
상라 형벌 을 중히 하 고 전 하 게 할 지라 세상 의 죄악
은 무한 하 고 형벌 은 유한 하 니 한 사람 죽 인 죄는 제
몸 은 나 할 죽 이 거 나 의 두 사람 죽 인 죄와 백 사람 죽
인 죄는 엇지 그 한 몸 을 들 희 너 고 백에 너 여 죽 이 리
오 그런 고로 세상 의 상 과 벌 노는 사 람 의 천 악 을 잡
을 길 이 업 스 니 라 모르 이 세상 에 처 착 한 사 람 이 엇
지 빈 천 고 난 을 밧 으 며 뉘 슬 놓 이 엇 지 부 귀 부 락 을

빛은 고착한 사람도 없고 두가지가 서로 일일이 잇는 것으로
현주 - 지극히 공변되야 할 가지가 서로 일일이 변하지
아니 함. 심이 업기에 세상의 적은 그로움으로 그 적은
은 죄를 속히 시고 죽은 후에는 큰 복락으로 큰 공덕
을 감히 시며 몸을 몸도 한 두가지 착한 일일이 잇는 고
로 현주 - 지극히 어지샤 할 가지 착한 일일이 감지 아
니 함. 심이 업기에 세상의 적은 복락으로 그 적은 공
을 감히 시고 죽은 후에는 큰 형벌로 큰 죄악을 다스
리시나니 이 세상에 착한 이도 후고로움을 맛나고
몸을 몸도 후를 거음을 벗음은 그 주는 후를 기 두려

상과 벌을 절단함 시려 호심의 나라

사람이 죽은 후에 편환이 있어서 상과 벌을 밋누
나라

호사람이므로 뒤 세상 의 상벌 노는 임의 사람을 밋
갓게 감호질 이 업슬 진대 천주 - 사람의 게 상벌을
누리호지아나 호시라 더 답호 더 벗지 그러 호리호
세상 남금도 반두시 현악을 보아 벼슬도 식이 고형
벌도 주거든 호물며 천디 의 지극히 높호 시고 지극
히 공번되 신남금이 벗지 상벌이 업스리 오이 세상
에 세 상벌을 온천이 아나 호심은 반두시 죽은 후 누를

기 두려 맛갓게 호심이니라 또 무르디 세상 사롬이
호번죽으매 몸이 썩어 업서 지니 상벌을 어대베르
노호디 답호디 사롬이 죽은 후에 몸은 썩어 드령호
은죽지아니호노니 증승의 혼은 제몸에셔 삼긴고
로 곱호고 브르그 칩고 더운 거시 제몸에 붓 혼일만
알기에 죽으면 그몸에 붓 헛년 혼도 살아 업서 지고
사롬의 혼은 제몸에셔 삼긴 거시아니라 몸이 삼길
제련주 | 신령호 혼을 붓쳐 주시니 그런고로 제몸
밖과 일도 도 화함이 잇고 슬의 여함이 잇스나 그날을
양이면 남이 나론 기림으로 내몸이 테브론 거시 업

스되 공원이 도회하고 남이 나쁜 회방행이로 내 몸
이 압흔을 거시 업스되 공원이 슬희여하니 이 도회하
고 슬희며 흐느낌이 반두시고 몸으로 소사나지
아니 할야 평흔으로 조차나니 그러므로 사롬은 증
승과 달나 평흔이 사로잇기에 몸이 죽어도 평흔은
떨아 죽지아니 하니 나라소 신 평흔이 형상이 업
서 볼에 돌것도 업고 칼에 상흔것도 업고 변들것도
업고 고로 죽을길이 업느 나라소 현주 1 우흐로 현
신을 내시고 아래로 증능을 내시고 중간에 사롬을
내시니 사롬의 평흔은 우흐로 현신과 크고 몸은 아

래로 증승과 못하니 그 령혼은 신 령하고 명 리하기
 로만 스물 통달 할야 현신과 못고 그 몸은 귀와 눈과
 손과 발과 입이 잇기 로 음식 먹고 운동 할야 증승과
 못하니 증승과 못 혼 물이 증승 못치 주을 제는 그 현
 신과 못 혼 령혼은 현신 못치 기 리 살 거시 니 이 제 사
 롬 마 다 현신 이 아 니 죽는 줄을 알 면 셔 현신과 못 혼
 령혼 이 죽는 다 할 면 이 는 현신 이 죽는 다 말과 못 혼
 니 라 쏘 증승은 살 아 셔 무 션 증승 이 라 도 죽 으 면
 무 션 지 아 니 할 고 사 롬은 살 아 셔 스 랑 할 현 사 롬 이
 라 도 죽 으 면 무 션 위 할 는 니 그 무 션 위 할 는 무 션 이

엇지 공연이나 리 오증증은 죽으면 아 조 죽노 줄노
알기에 무섭지아 니흐고 사 례은 죽어 도령 혼이 잇
서 엄 심환을 밧아 년 당과 디 우 분 별을 알기에 절 노
무척 위흐 니 만 일 사 례의 령 혼이 증증과 크치 업서
질양이 면 사 례 죽은 것도 증증 죽은 것과 크흐야 무
섭지아 니흐리 라 소 세 속 에 사 례이 죽으면 초 혼호
노 법이 잇스 니 만 일 령 혼이 그 몸과 크치 업서 지 노
줄을 알면 엇지 혼을 브루 노 법이 잇스 리 오 비 루 그
혼을 브루 니 도 그 혼이 입의 령 혼 못이 잇서 제 임 의 로
을 수 업거 니 와 혼이 잇기에 브루 니 라 소 령 혼이

기리사논고로사롬마다기리살고시분모음이잇
 서빙혜로살아드몸이죽을때에설워흐논모음이
 어려쳐죽논모음과갓고천혜만혜로살아드죽을
 때에설운모음은다갓힐거시니만일기리사논혼
 이아니면엇지기리살고시분모음이나리오비컨
 대음식먹논입이잇기에음식을먹고시분모음이
 나고소리듯논귀잇기에소리를듯고시분모음이
 잇고기리사논혼이잇기에기리살고적흐논모음
 이잇누니그런고로령혼이무궁이살아무궁할상
 벌을밧누니라

생현

평흔이반두시즐거움과그로움을받는나라
흔사름이쁘루디사름이외상에잇실때논몸이잇
기에즐거움과그로움을알거니와몸이업스후에
평흔이나가무어슬인흐야즐거움과그로움을알
니오디답후디온갓거시지각이업스면즐거움과
그로움을모르고지각이잇스후에야아나니초목
은지각이업스고로씻치뤄여드즐거은줄을모로
며버혀드압흔줄을모로그즘승은지각이잇스고
로먹으면도흔줄을알며식리면압흔줄을알고사
름은지각이즘승에쳐만베나너흐고드신려흔고

로그즐거움이그지각분수대로더흐야증승에셔
만비나더흐지라그러므로지각이업스면즐거움
이업고지각이조곰잇스면즐거움이조곰잇고지
각이만흐면즐거움이만흐니사롬의몸은다만외
화살이라지각잇논경혼이잇지아니흐면몸만으
로논즐거움과그로움을아지못흐야지각업논초
목과코흐를거시나이찌먹어맛술알고되려암혼즐
을알기논전혀지각잇논경혼이알게힘이니그러
므로사롬이죽어경혼이흐면나가면입의술은이드
히드돈지쓰지아지못흐고살에칼을질너드압압

줄을 모르니 일노 보면 령혼이 전희즐거움과 고로
음을 밧는 근본이 되노지 라 몸에 잇스나 몸을 떠나
나 령혼의 지각은 혼가지니 엇지즐거움과 고로 몸
이 업스리오

현주 - 현당 더욱을 두샤 세상 사람의 현악을
시험하야 잡호시느니라

현주 - 세세계를 비치호시매 하나 혼하 놀상 흥에
잇스나 일흥이 현당이 오하나 혼하 중심에 잇스나
일흥이 더욱이 오하나 혼하 아래와 싸우희 잇스
나 일흥이 세상이라 현주 - 이 세상에 사람을 너샤

착각의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착각한다 명료하시니 그 영혼을
 조차 천천히의 영혼의 천당의 열나시고 그 영혼을 비
 반흔히의 영혼은 더욱의 노리우시니 천당의 복은
 천주의 무궁히도 신영광을 보고 누림에잇스니
 세상복으로 비유권대정승환처와 감수병스와 수
 령들의 부귀하고 영화로음이 다 님금의 손으로 조
 차 내기에 빅관의 부귀영화 - 그 님금은 모든에 조
 사이엿시니 이제 만물을 보면 천나의 광대함과 일
 월의 광명함과 초목과 금수의 변화의 모함과 천신
 과 사람의 신경총면함과 각종귀이 혼맛과 향내와

만가지도흔소리외빛과만국님금의영화부귀를
다련주의전능으로내여제신지라그나신능을성
각하면보느즐거움이더욱엇더할그빛관의영화
본면면임의귀함을알거시오만물의도움임면
면련주의더그함을알거시니령혼이련당에오르매
련주그광명흐빛출령혼에티의주사당신무한
흐신영광으로빛최시고무궁흐신복락을누리게
하시니비견대거울에수는을볼나고히에빛최
면고거울이히의곳치찬관휘황호리나령혼도
련주의빛은빛출바아련주의얼굴이령혼에빛최

기론히 빛치거울에 빛침과르흐니라선사롬이신
 령^영의^의이잇는고르^로세^세상^상에^에무^무슴^슴부^부을^을엇^엇어^어도^도다^다시
 너^너의^의부^부을^을구^구호^호고^고너^너의^의부^부을^을엇^엇어^어도^도그^그의^의쳐^쳐너^너큰^큰부^부
 을^을구^구호^호야^야세^세상^상부^부을^을다^다엇^엇을^을지^지라^라도^도그^그무^무궁^궁의^의욕^욕
 을^을쳐^쳐오^오지^지못^못흐^흐다^다가^가천^천당^당에^에호^호번^번을^을나^나무^무궁^궁의^의부^부락^락
 을^을엇^엇은^은후^후에^에야^야그^그무^무궁^궁의^의욕^욕이^이만^만족^족호^호야^야다^다시^시보^보
 란^란거^거시^시업^업고^고선^선세^세상^상를^를거^거음^음은^은은^은몸^몸에^에코^코치^치박^박지^지못^못
 호^호야^야음^음식^식을^을벗^벗을^을제^제년^년입^입에^에즐^즐거^거오^오디^디키^키와^와는^는은^은즐^즐
 거^거음^음의^의업^업고^고음^음류^류를^를그^그로^로제^제년^년키^키에^에즐^즐거^거오^오디^디는^는과^과
 업^업이^이를^를잡^잡지^지아^아나^나호^호거^거나^나의^의천^천당^당을^을거^거음^음은^은그^그러^러치

아니 호야령호에 온천호례복에 저저 안팎업시즐
점고간디마다즐거오니 체생복은복이너름에들
어오디련당복은내복이복속에드리간지라쇼체
생복은오래면즐점지아니 호야호호소리드홍상
드루면슬고맛잇논음식도오래먹으면물나디련
당복은그러치아니 호야호놀새로이즐점그리일
새로이즐거워날마다희마다새로이즐점그만만
년억만년이라도무궁무진히새로오니라쇼체상
복은엇엇다가일호디련당복은호번엇으면다시
일치아니 호그영원의영호야변역그호의영호나라

도세생복은아모리도타하여도빅년을사지못하
고흐번죽으면만가지복이다헛거시되디오직년
당에잇는령호은무한호복을엇어만만세로살고
무궁세로살아녕호세월이업고못출의약이업서
기리사논중에즐거온모음이세월을나적련당에
서억만년을지내논동안이이세생호로못하나라

다음은련당과마즌쪽이되나라

련당의즐거움이무궁무진호즉다음의크로음도
그와스치무궁무진호지라다음가온대이상이쓰
거온불이마드구하야그답기가세생복에비호면만

생련

三十七

비나 더뜨거온지라 더욱불은 증불이 오세상불은
그림의불과 다르다 하였시니 그모질고 후독후독을
히알지라 악인의령혼이 한번그불속에 들면 불의
령혼전체에 온전이 져고 비야 마치 쇠가 풀무속의
들어안맞업시 불이 됴과 다르야 천년을 녹여도 업
서지지아니하고 만세를 티와 도살아지지아니하
야 영영이 그룹고 또이에 처너하고로움이 잇시니
세상에 잇실 제을 혼말을 듯고 조금수고를 하였너
면 현당에 올나 무궁흔 정수의 복락을 얻을 거슬 내
뜻으로 쉬운 일을 아니하고 번기 못한 세상의 잠간

즐거움을 위하야 이 제 이러흔 불속에 들엇도다
 번들매다 시나 갈피약이 엮쳐 앓흐고 쓰리고 설은
 무음이 그 쓰거 온고로 음에 석만 비나 더하니 세상
 의만 가지 흥흔 형벌과 만가지 득흔고로 음을 다모
 화흔몸에 밧아도 다 우흔번에 비흐면 만분지일도
 당치 못하리라 쓰련주의 무궁흔 신원능을 생각하
 면 알거시나 지극히 복은 거슬 내려하사 희로내시
 고 무한이 큰 거슬 내려하사 하늘을 내시그 지극히
 즐겁게 하려하사 천당을 두시고 지극히 곱게 하
 려하사 더욱을 두섯시나 이 제 더욱고로 음이 엇더

계심호리 오소불을의론을지라도연주의신통하
신능을알거시니장작불과숫불은심히쓰거워아
모거시나경위스이에티오고비위불은쓰접지아
니호디음식삭히기에노장작불에셔더호고석류
황은손으로문지매덥지아니호디다른불에다히
면급히나리나나다곳호불이로디그형상이각각
다룬지라디옥에두신불은쇼이셰가지불과크게
달나형상이법처능히형상업노령호은티와호상
티와드멸치아니계호시니가령디옥에잇노사롬
돌려현주니날오시더호리야미로바다물을일년

예호령음식물어내여그바다히다물으거든디우
의고로음을곳치리라호시면오히려바라노모음
이아득흐나그바다물은마물새가잇스려니와디
옥고로음은곳칠새업노즐을아노고르브랄거시
아조업스니그쓰리고설음이엇지다시비홀디잇
소리오

흐사름이므르디죽은후에화복이비록잇다흐나
제상에아모드가본이가업고이제상복은눈으로
보고몸으로밖으니이제상에서잘먹고잘넌거
시도흔지라죽은후의일을뒤알나오디답흐디제

상일이 눈에 보노 거스로만 다 밋을 기리업고리치
로성각하여여츄밋브니 돌은 눈으로 보면 정반만
흐고리치로성각하면 정반에셔역만비나더크나
눈으로적어보노 거스밋을 거시업고리치로큰거
시올흐나라도손가락으로누흔산을 마르치며눈
으로보면손가락이그산에셔더눙고리치로성각
하면그산이손가락에셔역만비나누흐나눈으로
산이누자보노 거스밋을 기리업고리치로산이눙
흔거슬밋을지나라그러므로혜상사름이눈으로
보지못하여도리치로성각하면밋노일이만흐나

유복주 - 그아비로보지못하여드레몸이삼긴거
 슬혜아리면아비잇는줄을알고사름의조생은본
 이업서드그손을보면조생이잇는줄을맛고식
 을백성이님금을뵈옵지못하여드나리히잇고정
 스 - 잇는거슬보면님금이제신줄을맛고신의국
 백성이중원베황데잇서사름을상주고벌주노거
 슬보지못하여드레나라님금이상주시고벌주시
 노거슬인하여중원에도황데잇서상벌주노줄을
 밋으니이혜사름이비록현주를뵈옵지못하고
 현당에가보지못하여드나혜상님금의상과벌을

생원

보면엇지현디남금의무궁호신생별이업다호의
 오현당과디우말슴은현주 | 친히만민의게닐호
 시고만세형인들이호기지로닐너오호말이라슬
 프다현디가업스면현주 | 제신줄을모르려니와
 현디임의잇스니반드시현주 | 제실거시오현주
 | 지의지공호시니반드시생주시호현당과별호
 시호디우형호곳이잇스리라쇼사롬마다본성을
 인호야영회롭고즐거온사롬을보면반드시크이
 디하늘우의사롬이라호니이호스스로하늘우의
 즐거음이잇호줄을알미호현동소리호드르면늘

나고 두려워야 문득스귀 죄악을 생각하여 후련
별을 남을 가져 허나 이노스스로 현주 - 악인이
론 벌하시노 줄을 알미라 늘 드나 현주의 생선 벌악
하시노 드리론 듯고 성원스 후의 스 정을 알면 석오
히려 아득히 쳐도 지 못하여 번키 르흔 쇠상의 잠간
즐거음을 위하고 아직 도음을 닐지 못하여 헛거슬
참거스로 알고 중흔 일을 경흔 일을 노알맛다가 죽은
후에야 비르소노으로 보고 몸으로 당하여 놀나고
철워야 아보리울고 뒤웃쳐흔들 무어서 유익하
리오이 쇠상에잇실 제 벗어 현을 힘히었시 변공이

되여우의향려나와주어후에비록아나및고적하
여도인연시및은나이에및은거시무슴호협
이잇스며엇지늦지아나홀리오

주요지하천

천주 - 옛세만에 천디만 물을내시니라

천주 - 처음에아모것도업노가온대로조차천디
물내시고또호무수호천신을내시니그천신의성
품이다착하고형상이업서신묘하고정통호지라
그품이아함이잇스니그중에상품으로대천신호
나히일흠은누지불이라천주 - 큰저능과슬과물
주시니그천신이귀의신통하고귀이흠을알고
스스로고만호모음을내여망녕되이천주와곳호
로리호야다른천신두려위를위하고섬기리호나

하천

연신중에 이르러 연신호나 히일흙은 미가엘이라 누
지블의 일을 절름이 내키고 이르러 주를 모든 연신의
근본과 주지되지 시노 줄노 말아 그은 헤를 감자 호고
그 높호 심을 흙승 호야 지성으로 밧들 매 연신중삼
분의 이분을 거나 려 호가지 르 연주를 극진히 섬기
노지라 연주 | 그 총신되 노 연신은 연양에 두샤부
중호복락을 누리 기리착호 연신이 되게 호시고 그
역적되 노 연신은 디옥에 누리 위무진호 별을 밧아
기리마키 되게 호시 나라 연주 | 록일만에 만물을
조성호 샤몬져 연디로써 시나 혼돈호야 츠레업노

지라 이에 차례로 논호실서 첫날은 호번 명호사정
 직스이에 빛출내시고 잇호날은 흥흥호하늘과 혼
 돈호사호논호시고 사호날은 사희음호내로 산을
 삼고사희누준대로 바다호삼고 호사희호초목과목
 식이나게호시고 나호날은 희와 돌과 벌을 온두사
 주야와 월후론논호게호시고 닷서날은 물속에만
 가지고기외공중에만 가지나호시론나게호시고
 옛서날은 사희만가지기논증승과 온흥을나게호
 시고나중에 사롬을내시나이호엇지호신싯인고
 현주 | 우리 사롬을스랑호심이마치부모 | 스석
 하던

함을 야호시나히로내시나일함은아담이라 아담은황
 말라 라甸주 - 아담으로잠을잡히들게하시고그가
 리더호나흔새허호제집사롬의몸을본두시고호
 련함을결함하시나일함은예와 - 라 예와는못사
롬의비미라
 딸 두사롬이다장형호몸으로나져썩호야부부 -
 되니부부의두몸이본디호몸으로삼겜시나맛당
 이서로사랑호게호심이오쓰제집이사나히게로
 난거시나안해맛당이남련의게공순제호심이라
 甸주 - 두사롬의게죽식낫노능을주샤죽식을나
 호니보甸하억만사롬이다그죽손이되노고로우

의 사름이 서로 사랑하기를 부모의 제로 난 등성
곳치 하게 하심이 라 현주 - 아담과 에와의 제 특별
행위 해를 누리워 그 청품이 착하여 사육이 업고 그
슬과 복이 흐린 곳이 업고 마음이 구히 받나 현변의
지아나 하니 이 논령 혼의 복이 오 쓰 현주 - 이 세상
에 혼도 혼 곳을 문 두 시 나 일 흠이 다 당이 라 이 두 사
름을 다 당의 두 시 때 다 당은 칩도 덤도 아나 하고 오
목 백과 - 다 절 노 나 처 밧 같 지 아나 하여 드 먹 을 거
시 너 너 하고 옷 남 지 아나 하여 드 몸이 빗나 부 그리
음이 업고 또 모든 짐승이 사름의 명을 드리 범과 비

암곳호거시라도사름을상해치못하고변병도업
 고압흙드업서몸이죽지아니호야세상에잇슬과
 한이츠면산몸으로턴당에을너턴신의뵈자리를
 겁게호시려흙이오호그만세즈손도다복을누리
 게호실거시모디이런무궁호은혜를공업시그져
 주지아니호실지라몬적공을세우고후에복을받
 게호려호샤턴쥬 | 원조두려 원조노릇등조상이
라말이니아당파에
 라와 | 날은시디디당에복가지실과를다먹으디다
 만호가지천악과를먹지말나만일이실과를먹으
 면은혜를일히이세상에서무수호고로움을받아

하천

四十五

죽기론면치못하고도호세상에디우고로음을받
을거시오쇼이죄로너의만세조손까지안화1맛
츄리라호섯더니싸에마키사롬이현주의은혜를
중히받아세상에셔디당부를누리다가호세상에
련당부를벗어죄희안스던자리에물니려호심을
알고갑히용심내여그부를일케하고죄를서대너
사롬이마키말을듯지아니호면은혜를보전호야
공이될거시오사롬이마키씩음을드루면은혜를
일히죄가될지라이에마키디우으로브터나의본
죄에와를유인호야클오디디당에빅가지실과를

다 먹으되 엿지 호야 오직 현악과 호가 지를 현주
 너희 다려 먹지 말나 호시는 되 답호 되 만일이 실과
 룬우리가 먹으면 죽으리라 호 신연고
 로라 마키 추여 날으되 그러치 안이 호니 너
 만일이 실과 룬 먹으면 슬귀가 현주의 못 호야
 모 룬 일이 업겠기에 현주 너희 두려 먹지 말나 호시
 나라에 와
 그 석 음을 듣고 망녕되이 현주의 못 호를
 무음을 내여 인호 야 식 먹고 호 아담을 권호야 먹으라 호니
 아답이 호 호안해의 말을 듣고 밤아 먹으니 슬프다
 죄지은 경 익스이에 슬겁던 세상이 홀연이
 고로 온 세상이 되

여칩고더우며비급흐고목마르며슈고르이박간
후에야곡식이되고브르런이질삼흐후에야옷술
엇어남으며또현주는사롬의님금이되시고사롬
은만물의님금이되거논이제사롬이현주여죄를
범흐엇기에만물드그잡힘으로사롬을해롭게하
야비암과범긋흐거시다능히사롬을죽이고만가
지병이때때로나러나죽기물면치못흐나이노욕
신의병이오그령혼의병은더크고더중흐야무음
의복은거시변흐야너두어지고형름이어진거시
변흐야클너지고무음의잡은죽장이남앗시나임

의견변되고바르지아니흐야착흔일흐기노여흐를
을거스려올나가기곳치어접고학흔일흐기노언
덕에순히누려닷기곳치외운지라현주의어지신
모음이도로혀진노흐시고사롬이눅흔복을일고
마귀종이되여일성에고롭고슈고롭다가죽은후
에디무무중흔고로움을밧고드만세곳손이흐가
지로그죄의벌을넘어죄의더러움을무드러나노
지라그런고르형정에닐넛시뒤벌은아히사희서
러지면다죄인이라호시나이노원조의죄를닐으
심이라호를며장성흔사롬은원조의죄뿐아니라

또 저지은 죄를 더 하엿시니 그 죄를 엿지 다닐은
리오한 사롬이 므르디 원조의 실과 먹은 죄가 무슴
큰 죄 완디 그 벌이 이러 두시 중후고 또 저손 의게서
지 밋츄은 엿짐이 노디 답후디 죄악의 경후고 중후
이 죄지은 곳이 좁고 누른디 돌넛시나 날은 양이 편
백성이 원의게 죄를 지엿시면 그 형벌이 티장을 밧
을 거시오 감스의게 지엿시면 형츄를 당할 거시오
남금씨 지엿시면 키항갈 거시오 천씨 지엿시면
죽기를 면치 못할 거시오 나죄호호 가지라 드죄지은
곳이 더욱 좁을수록 그 형벌이 더욱 중후지라 이죄

원조의실과먹은죄가무궁히눕흐신현주석범흐
엿시니현주무궁히눕흐신즉그죄가무궁히중
홀거시오그죄가무궁흐즉그현벌도무궁홀거시
니엇지무궁흐고르음을면흐며쇼만쇼손인들
엇지그벌을면호리오비전대사름의조상이님금
씨득죄흐엇시면그조손이디디로변방에충군호
고위노흐노법이잇나니원조의벌이그조손쇼지
현주홀음을엇지맛당치아나타호리오

현주강석호야사름이되샤흔희상사름의
죄를구호시고혹호시니라

원조 - 한번 죄를 지은 후에 온전히 고금사 롱이다
다음의 무궁한 형벌을 받게 되엿는지라 천주 - 지
극히 어 지 시 고 지 극히 엄혹덕이 계시나 지 극히 어
지 신즉 사 롱의 죄를 다 사 하 고 죄 하 시 뒤 만일 그 죄
사 하 시 면 지 극히 엄혹 신덕이 형치 아니 하 야 사 롱
이 더욱 죄짓기에 귀탄 업슬 거 시 오 지 극히 엄혹 신
즉 죄인을 즉 시 벌 하 고 죄 하 시 되 만일 다 벌 하 시 면
지 극히 어 지 신덕이 상하를 거 시 오 또 사 롱을 내 사 하
볼 에 올 니 려 하 신 본 뜻 이 아 니 라 이 러 므 로 그 죄 사
하 기 도 어 렵 고 벌 주 기 도 어 렵 워 두 가 지 다 난 처 하

고도 지극히 공변된 덕이 계시니 지극히 공변된 신
 즉 그 형벌이 그 죄에 맞듯게 크저는 실지라 그 죄가
 임의 무궁호즉 그 형벌도 무궁호 후에야 그 벌이 그
 죄에 맞당호야 속죄가 될지라 그러호즉은 세상사
 롬이 천주압희다 죽어도 그 형벌이 한이 잇스나 엇
 지한이 잇는 형벌노 한이 업는 죄를 속호리 오도사
 롬은 지극히 천호고 천주는 지극히 높호시니 지극
 히 천호사 롬으로 지극히 높호신 천주의 죄를 엇은
 지라 그 죄를 속호실일이 업스나 다만호신 통호법이
 잇스나 만일호사 롬이 잇서 높기가 천주의 크호야

하천

四十九

만민의 죄를 다 그 몸으로 안고 벌을 받으면 비로소
속죄가 될지니 대개 죄를 범한 곳이 비록 지극히 좁
흐신 천주 - 시나 속흐는 이 도는 천주와 못치 좁
흔즉 가히 천주 역범한 죄를 속흐리라 그 좁기가
천주와 못치 한이 업는 그로 그 속흐공도는 좁음
과 못치 한이 업는 나 임의 무한한 공이 잇신 즉 가히
무한한 죄를 속흐리라 그러하나 사람은 다 지극히
천하고 지극히 누르나 엇지 천주와 못치 좁은 이가
잇스리 오 천주와 못치 좁흐신 이는 오직 천주 -
시라 이에 천주 - 지극히 어지신 마음으로 세상사

룬을블생이넉이샤친히세상에누려사룬이되샤
 우리죄를속하고적심이라되생에누리시기전
 에혹죄호실말슴을미리원조의게널으시고도원
 조로브터그즈손의게전화하게하시고그후에여
 러성인을디디로보내샤제생에누려혹죄호실말
 슴을괴룩호야성경을본듯게하시나그성경에미
 리말슴호엇시히현주아모새에나심과아모새
 희노리심과그희실과스적의엇더호심을다스세
 히괴룩호엇더나과변성경에호신말슴과스호야
 그나신새와누리신새와형성의호신일이다성경

하현

五十一

실년말슴과 낫낫치셔 로마자호말드틀니 지아니
흔지라 현주 | 강성하시려 흔새에 흔녀인이 제시
니 일흠은 마리아 | 라고 성흠이 지극히 찬 권하시
고 그 형실이 지극히 아름답다 오샤 흔 노원 죄에 무드
지아니 하시고 그 착흔 신덕은 현하만 그 예테일이
되시노지라 평성에 조출흔 덕을 닦고 사아히 몸을
직히 고죄하시더니 현주 | 특별이 사모친을 삼
아 그 비를 비려나시려 흔 실서문적 갑열 대 현신을
보내여 마리아의 보흔야를 후디네 복을 신축흔
이다 성후을 두히 남으신 마리아여 주 | 너와

가 지로 제시도 소이다네 장 축빙티호야 아 돌을나
흘거시니 예수 1 라 일흥호요셔 마리아 1 그말씀
을드루시고 아히몸과 조출호신덕을보전치못할
가적히호야놀나클호샤티나 1 가임의종신도록
아히몸을직희려호였시니 주식비리라 말씀이엇
지 되리호련신이타답호야클호디련주 1 스스로
무궁호능이제시니 녀넘녀치마 읊쇼셔 마리아 1 허
락호야클호샤티그럴진대네말슴대로일우여지
이다이에련주형신이신묘호신능호드마리아의
조출호신의를가적경익스이에호육신을일우시

하련

541

고아도 아들도 다 인령함을 부치시매 곳 현주 영주의
 혼가지로 합호신지라 아홉등만에 청탄호시나씨
 노한 나라의 테원숙이년 동지후 데스일이 라강성
 호신새르보테이제니 루히일천칼빅여년이 나
 신후칼일만에 할손례를 밧으시고 예수라 일흠
 호시나 테에 누리시기 천에 현신이 현주의 명을 밧
 드리 형모마리아의 보호일흠이라 예수라 말슴
 은 세상을 구속호신주라 뜻이니 예수호위애
 현주성과 인형을 절합호야 계시나 진실 노참사름
 이시오 참현주라 참사름이 심은 령혼과 육신

이계서 사람의 로더브러다 롬이 업스심이 오종
 려 죽 - 심은 려 죽 형 부의 려 죽 형 신으
 로더브러 흐레시오 흐 형이 시며 소 사람이시오
 려 죽 - 시라 말씀은 예수 흐 위 에 려 죽 형 과 인 형이
 처로 합하야 제 상을 구 하시 조 자 - 되 여 제 시 나 마
 치 사람의 려 흐 과 우 신이 합하야 흐 사람이 됨과
 하니 라 소 그 려 죽 형을 변하야 사람이 되 심도 아 나
 오그 인 형을 변하야 려 죽 - 되 심도 아 나 라 두 형이
 비록 합하시 나 그 형이 각각 잇고 각각 형하야 려 죽
 는 려 죽 의 형을 쓰시고 사람은 사람의 형을 쓰시 나

비컨대복송아남기두가지잇스니호가지노셀희
에벗히나고호가지노버히고살구나무가지로접
호매각각그본형이잇고각각그열티열니여복송
아가지에노복송아가열니고살구나지메노살구
가열나엿시나복송아가변호야살구됨이아니라
가지노들히로티나무노호나히나두가지가호셀
희에벗흔연고 1 라 예수호위에던죽형과인형을
합호심이마치복송아나무에살구가지를접호과
곳호지라그런고로그형은비록들히시나그위호
오직호나히시나진실노던죽 1 시오사롬이시며

사 례 이 시 으 려 면 죽 一 시 라 예 수 一 두 가 지 형 을 합 하
 심 이 이 러 투 시 아 례 답 고 쓰 두 가 지 형 을 쓰 시 노 요
 리 가 신 통 하 고 귀 모 하 시 니 라 예 수 의 인 성 을 의 료
 하 면 아 담 의 주 손 인 고 로 가 히 아 담 의 세 친 죄 를 만
 흘 리 거 시 오 또 사 례 과 크 호 혈 락 인 고 로 가 히 사 례 의
 범 호 죄 를 담 당 하 시 며 그 려 면 죽 성 을 의 료 하 면
 지 극 히 높 하 시 고 한 량 업 시 존 티 하 시 니 호 번 절 은
 고 로 음 만 밧 으 쳐 도 다 부 한 호 공 이 되 여 려 하 사 례
 의 죄 를 너 너 히 후 하 야 그 공 이 높 을 거 시 오 려 면 죽 성
 과 인 성 이 점 하 야 제 심 을 의 료 하 면 우 호 르 려 면 죽 성

하 려 면

五十三

친히시고 아래 사롬의게 친히시니 예수 - 천주
와 사롬 두스이에 거간이 되샤 천주와 성부의 아
들이시오 사롬의게는 만민의 장형이시니 형의 아
가 그 아버지와 오의 죄를 보고 불쌍히 녀어 그
아버지의 아오의 죄를 죽이가지은 두시 하야 하
기를 구하면 그 아버지가 그 맛아 돌의 근절이 비
노 형상을 보고 반두시 그 적은 아들의 죄를 풀어 줄
지라 이와 르치 예수 혼위가 천주와 사롬 두스이에
다리가 되샤 천주 - 사롬의게는 헤를 주시고 마르
치려 하시면 예수 - 천주 형으로 천주와 빛아 인성

으로서 룬의게 누리우시고 사 룬이 천 주를 공경하
 고 귀 구하려 하면 예수 - 인형으로 사 룬의게 밧아
 천 주 형으로 천 주 의을 나 시며 예수 - 천 원 조의게
 논서 로마 존 작이 되여 원 조 논 쇠 상을 문희 쳇거 논
 예수 논 쇠 상을 구원 하시 고 원 조 논 만 가지 죄 의 션
 희가 되거 논 예수 논 만 가지 덕 의 션 희 되 시 고 원 조
 논 만 가지 화 의 근본이 되거 논 예수 논 만 가지 복 의
 근본이 되샤 원 조 의 일 혼 바 를 예수 - 회 복 계 하시
 고 원 조 의 그릇 친 바 를 예수 - 곳 치 시 고 원 조 의 지
 은 죄 를 예수 - 욕 하시 고 원 조 의 병 든 바 를 예수 -

낮게 하시고 원조의 주은 바를 예수 - 살 나신 고로
예수는 다시 살 나시 논 조상이 라 날은 누 나 라 성 비
유전 더 두 사 례 이 서 로 원 슈 - 되 여 스 즈 로 화 회 할
길 이 업 더 나 혼 벗 이 잇 서 그 두 사 례 과 친 할 매 그 스
이 에 거 간 할 야 화 회 를 벗 치 면 그 두 사 례 이 도 로 호
화 회 지 라 사 례 이 현 주 세 득 죄 할 야 현 주 와 사 례 이
서 로 원 슈 못 할 니 사 례 이 현 주 세 벨 어 죄 를 버 려 날
길 이 업 그 현 주 사 례 의 게 은 용 을 누 리 우 실 길 이 업
논 지 라 예수 - 현 주 와 사 례 두 스 이 에 제 세 우 할
로 논 현 주 와 벨 테 되 시 고 아 래 로 논 사 례 과 할 의 벨

이되샤 천주와 사육신의 계다 친히 신고로 천주 1 사
 롬으르 더브러 다시 화합히게 하시니라 예수 1
 단 성히 실때에 천신이 공중에 풍류물지어 천주를
 찬미히고 세상사육신을 경하히며 또 근방에 잇던 목
 동들이 천신의 날은 말씀드리세 상구하 실천주
 1 강성히 심을 알고 압흐로 나아가 업디며 절히며
 또 다룬나라세 남금이 잇서 천문을 통달하더니 하
 르는 하늘에 보지 못하던이 상히 별을 보고 흠연성
 각히니 천경에 날너시 더 천주 1 세상에 누리실때
 에 이상히 별이 하늘에 빛리라 한 말씀은 감동하야
 하편

즉시 길을 떠나 별을 뜰 아갈 서그 별이 공중에 횡행하
야 예수 강성하신 곳에 나루러 곳치니 삼왕이 드려
가 예수로 뵈옵고 참된 주이신 줄을 알아 엎드려 절
하니라 예수이 세상에 설흔 세히로 계셔 지극히
덕의 표를 베키시고 지극히 거룩하고 온 세우샤 드론
바라게 하시고 사롬의 마음을 감화하샤 만민에게
무궁하온혜를 베프시고 소련적을 무수히 나타내
샤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막은이 뚫게 하시고 병
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롬을 다시 살게 하시고 바람과 불결을 곳치라 하

시면 곳치고 초목을 물으라 하시면 물으고 마귀를
 쓰초시면 마귀를 너가 떠다 만물이 다 명령을 조초
 니이 노현 죽의 무궁한 신능을 나타내 심이 오소옥
 신병 못침으로 써령혼의 병 못치노 빙거를 회심이
 라 예수 1 만민의 머리가 되시노고로 못참내 만민
 의 죄를 당신 혼몸에 담당호사 목숨을 버려 만민의
 죄를 속호시기를 위호사 죽으시니라 넷죽에셔
 국에 처두나라 하호로 싸화벽성이 무수히 죽고승
 왜를 결단치 못호지라 그호나 라님금이 벽성을 볼
 상이 너여 귀신의 기념취부러보나 곧오 뒤님금이
 하현

죽으면 천국을 이기고 백성이 다 살 나라를 거느림
금이 백성을 사랑하노니 마음이 지구하야 님금의 뜻
슬벗고 군복을 벗고 아담아 다른 사람이 모르게 너
진중에 들어 가 죽으니 그 백성을 위하야 죽기를
원함이엇지 아름답지 아니하며 찬송치 아니하리
오이제 예수 드세 생을 구하신 법이 이와 같치만 세
반만 살 나기를 위하야 그 난을 즐겨 벗으샤 못춤내
죽기까지 하섯시니 그 은혜 더욱 크고 하시고 만비
나 너하 나라 이 때에 그 나라 희락하사 롬의 무리
잇스니 외면으로 착하듯하되 실노안 믿음 이 흥하

고복은 뜻은 디실노 미련하니 예수ㅣ 그 스이 예 거
 후심이 마치 복은 거울에 얼물을 밧최면 감고 너러
 온 모양이나 타남과 뜻은 지라 너희 흉악한 마음을
 복이 드러나게 하자 미양경계하시고 쓰지스시나
 그 몸을 무리이 경척 후심을 들히여 하원 통함
 음으로 후상상해으고져하나 예수ㅣ 죽으실 피약
 이 나르기 전에 너의 무리가 아모리 쇠하여도
 음대로 못하니 못참내 슈난 후실 피약이 나르매
 악한 무리 흉계를 비로소 방자히 거늘 예수ㅣ 이
 예 세상 후실공을 일우고져하자 그 악한 계교를

받려 두어당신착하신덕을나타버신지라 추난
전날밤예예수 | 청밤오리의 동산에가사련주
성부의세번을빌으실제성각하시더나 | 장초이
러투시중하고로움을밧아도만죄사름이오히려
감등치못하고죄를끗치아니하야다옥에혀려
지논자 | 만흐리라하야참후히낙이시논모음이
큰절하사온몸에되삼이흐루신지라도련주성부
의업뒤여절하시고사름의죄사하야주시기물구
하시더나 밤중이되매악하무리오빈인들두리고
오리의 동산으로오거늘예수 | 부르시더누구물

좃노 노의답호되 예수로 좃노라 예수 | 클오사대
 나 | 르라호시니 그호말슴에 오빅인이다 사희갓
 바적 죽게된지라 예수 | 그무리 두려 내려나라호
 시때 오빅인이 그소리 에다시 석여 내려나니
 엇지호신 뜻인 그 예수 | 녀희게 잡히시고 형벌을
 밋으심이 다당신 즈원으르호 심이 오면호 힘어부
 족호 심은 아나라 만일 잡히여 가지아 내려호시면
 그오빅인을 다시 내려나지 못호고 아조 죽게호시
 러호여도 지극히 쉬운지라 예수 | 그로음을 밋으
 시고 형벌을 다호 심이다당신이 스스로호고져호
 하현

십이오 사람의 힘으로 강박하라 일이나나 죽음을 알지
 험심이나 오백인이 예수를 잡아결박하라 본산
 비라도 관가에 보내고 바라사 무리만히 모화하
 기지로 아문에 들어가 예수를 무함하라 들네 나 비
 라도 너희말이 무함인 줄을 아나 약한 몸으로
 로 약당을 무쳐워 하야 예수를 군스들 손에 맡기나
 군스 예수 의 옷을 벗겨 들기 등에 잡아 미끄편티
 하야 오천스 빙여 수에 나루니 예수 의 온몸이 터져
 의가 낭자히 흐르노지 리는 옥하라 가서 관을 문
 두라 예수 머리에 씌우고 막대로 그 관을 누리치니

가 서 머 리 에 겁 히 박 혀 희 가 흘 너 얼 굴 에 마 득 흐 지
 리 쓰 예 수 를 조 롱 하 야 님 금 의 옷 슬 님 히 고 거 죽 제
 로 유 너 아 님 금 의 절 흐 너 라 비 라 도 1 예 수 의
 온 몸 이 썩 어 처 희 롭 을 보 고 무 음 에 참 후 히 너 의
 악 당 들 의 무 음 을 감 동 흘 가 하 야 예 수 를 마 르 척 이
 를 보 라 하 니 악 당 이 비 라 도 의 노 흐 러 흐 노 뜻 이 잇
 는 줄 을 알 고 나 드 아 나 러 나 소 리 질 너 를 인 뒤 예 수
 가 나 라 흘 비 반 하 니 만 일 녀 를 죽 이 지 아 나 흐 면 우
 리 가 국 왕 의 제 벗 스 의 너 1 가 예 수 와 흐 가 지 로 반
 흐 다 하 야 예 수 와 흐 가 지 로 죄 를 닦 게 흐 리 라 흐 거

하 권

五十九

놀비라도 | 못놈의 소란음을 보고 크게 접을 내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로 환단호야 악당
들손에 맞겨 붙으니 너희 임의대로 호라 예수로 죽
인 죄는 너희들이 악당을 거시니 내게는 관제업다
호고인호야 물노손을 씻서 죄업노라 호니 악당이
장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문드라 예수로 지우고
성밖과 나가 갈와 리아 산으로 가니 예수 | 십자가
를 지고 가실새에 길희 처치이시고 괴력이 큰 힘은
사세 번을 넘어 지시니 라 그 산 꼭 닷이에 니루시매
악당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거룩호신 몸을 십자가

우희노고 두손을 누화 못슬 박고 두발을 모화 못슬
 박노지라 이새노 평히으시러니 흘연어듬기 밤곳
 할야 일월이 빛출일고 온사히 진동 할야 산이 문허
 지며 돌이셔 르브듯치고 그 총이 절노 열나며 사람
 이다 놀나 올고 만물이 다 참혹호모양으로 죽으신
 예수 - 참천주 되심을 나타내 더라 예수 - 죽으신
 후에 악당이 선창으로 그을 혼편루방을 질너 본몸
 의 피와 물이 다 쓰다져 사람의 죄 구속함을 임의 못
 좃시니 이에 천주의 진노호 심이 굿치시고 사람의
 복이다 시드라 오나라 예수들이 예수의 거룩호신

하편

六十

신혜를 넘겨야 들 무덤에 장수하고 거룩하신
령후인 임의 람보 넷형인 들 잇는 곳에 가샤 그 친인
들을 위로하시라

예수 - 다시 살어나 신후 스십 일에 하늘에 올
나가시니라

예수 -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령후인 이 그 육신 잇는 무
덤 속으로 들어가샤 당신 통하신 능으로 그 육신
과 결합하시야 다시 살으시니 그 부활하신 몸은 세상
옷을 남지 아니하시며 명화로 온 빛 치온 몸에 둘러싸
고 손에 흐린 귀를 들어 제시니 이 노사름을 이 귀신 뜻

을 빚이라 예수 - 다시 살으시며 천에 흠나 신의가
경력스이에 다 그 몸으로 도라의 혼념드싸희 무등
이 업고 온 몸의 상하 신혼적 이 업스디 혼노 두 손과
두 발과 가슴의 상하 신다 솟구멍을 머므르샤 사롬
의 죄속하야 주신들로 볼시나 다만 그오 상의 영화
로 온 빛치 온 몸에 썩비로 너하시너라 예수 - 부활
하샤 온 처형모 마리아 여가 뵈시니 형모 - 죽엇던
아 돌을 다시 보시 때 그 몸에 영광과 아롬 다음이 령
령 하시고 회황 하시니 즐접고 깃브기 추랑 범논지
라 예수 의 다시 살으신 몸은 세상에 계시던 몸과 달

하련

六十一

나사롬의 눈으로 볼 길이 업시 당신이 뵈신 후에야
비로소 사롬이 보노지라 형오의 뵈신 후에 두 번저
논성녀 막다레나의 게 뵈시고 세 번저 논 버러형녀
의 게 뵈시고 네 번저 논 슈종도 베드루의 게 뵈시고
다섯 번저 논 길에 처 두테즈의 게 뵈시고 여섯 번저
논 열종도의 게 뵈시니 이때에 종도들이 문을 닫고
흐가지로 잇더니 흘연 문이 열나지아나 흐고 예수
1 방가 온대 들어와 계시거늘 모든 데즈 1 열며 무
쳐워 흐니 예수 1 큰인 사 터너 희들이 무쳐워 흐지
말고 내 손과 발을 주세 히 슬려 보아라나 1 진실노

이전몸이 오신이 아니므로라 하시고 인하여 그 손과
발을 뵈시니 못박혀 쓰나 친구명이 머물너잇는지
라. 종도들이 괴이히 녀압하므로 나와갓가이 할
뒤 오히려 밋지 아니 할거늘 예수 - 이르시되 너희
들의게 먹을거시 잇느냐. 종도 - 물고기 구은 것은
조각과 기꿀은 냉이를 가져드리니 예수 - 잡수시
고 남여지론 네즈들의게는 화주시나 그 참된몸이
신줄을나타내심이 라. 쓰클은 사탄 너희들이 할가
지로 평안이 거 할라나 - 너희를 보내기를 마치
나. 의정부 - 나를 보내심과 못치 할라 하시고 이

에 모든 이 돌향하야 입김의 불어 불어 사되 이제
 성신을 밧으라 너 희가 사롬의 죄를 사하느니라
 머므른즉 머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ㅣ가 신후에
 도마^{||}종도ㅣ 비로소 니르매 모든 종도ㅣ 녀두려닐
 으디 우리들이 오즉 예수를 밧앗노라 하니 도마^{||}
 그지듯지 아니하야 불어 디내 눈으로 두손에 밧
 히신자 죄를 보지 못하고 내손을 가슴에 너히보지
 못하면 반두시 밧지 못하리라 하시니 팔의 힘은
 번지는 열한 종도의게 비실시 예수ㅣ도마^{||}종도를
 불너 불어 사되 네 눈으로 내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내

가슴을 온전히 심을 두지 말나 도마 1 공평하라 보
 고 온 지 마 그 마음 이 황변이 세 두라 크게 갖거 하야
 소리 들릴 너 온 인 뒤 참 우리 주시며 우리 현 주 1 로
 소 이 다 예수 1 큰 인 사 되 너 1 가 나 온 본 후에 야 비
 로 소 밋 으 나 나 온 보 지 아 나 흐 크 밋 눈 이 눈 더 우 참
 복 이 로 다 하 시 너 라 예수 1 도 마 의 의 심 을 들 으 심
 이 겁 흔 뜻 이 제 시 나 더 개 흔 사 롱 의 흐 세 의 심 으 로
 써 만 제 만 민 의 의 심 을 들 으 시 고 흔 사 롱 으 로 써 그
 몸 을 온 지 게 하 사 후 세 모든 사 롱 의 밋 눈 증 거 들 두
 심 이 나 라 여 해 번 지 온 종 도 등 날 몸 사 롱 의 게 비 시

하 현

六十三

고아 흠번저는 열흔종도의게 다시 뵈시고 열번저
고흔종도의게 뵈시고 열흔번저는 봉고흔노오뵈
인의게 뵈시고 하날에 오루시노날까지 열두번을
뵈신지라 예수 | 제생에게 신지스십일 동안에
된주성교의법을 세우샤 그제스들을 주세히마르
치시고 스십일과약이 차매 장차 하날에 이르실서
모든테스 두려닐이시되나 | 하날우와 사아래천
을 온천이 밧았시니 너희들이 밧땅이 천하에 노화
가 천중의 바로도리르만 믿을고루치고물노섯기
뒤부의 주와 성신의 일흠을 인하야 할라나 | 너희

두려날바라니 너희도 만민의 제닐너그중에 밋고
 물노 씻김을 밋노 이노 반 두시 하 놀 에 올나 기리 무
 궁호복을 누릴 거시 오 밋지 아 닛노 이노 반 두시 디
 옥에 처러져 무궁호고 르 음을 밋으 리라 섰글야 사
 디 밋노 자의 게 반 두시 만흔 령적 이 밋스 리니 내일
 흥을 힘호야 능히 마 키를 섰고 능히 다 른 나 라 말은
 호고 득호거슬 나 처노 해가 되 지 아 니 호고 병 든 이
 료문지면 병이나 호리 라 호시 고 섰글야 사 디 나
 날 마 다 너 희로 더 브러 호 가 지 르 호야 세 상 못 출 때
 서 지 밋스 리 라 호시 고 말 승을 못 추 시 매 문 테 료 다
 하 려

리고 오리의 산으로 가지니 형모 1 손호 조차가 제
신지라 예수 1 손호 들며 모든 데스 의 게 강복 하시
고 그 기록은 신음이 석호 처나 공중에 오르실 서넷
적형인의 영혼이 흐가지로 싹오고 모든 현신이 좌
우로 되서 공중에 풍류 돌드리고 급히 흐루시 매치
석구름이 예수의 발을 그리워 못사롬의 눈에 비지
아니 호는 지라 예수의 몸이 흥흥하노는 싹오시
고 현당에 오루 사턴 주형 부을 현에 좌영호 신지
라 형모와 데스 일박스 무사롬이다 오리와 산우희
잇서 하노는 우리러 보고 생각하야 참아 처나 지 못

흐니 오주 예수 - 그 제자들의 무리도 모양을 보시고 두련신을 내려 보내 사위로 호야 큰 호 사티 예수 - 임의 호루 사이 제련당에 제셔 만민을 살나 그 죽이 고복 주고 화 주노 천을 맛 하 제시 나 이후에 세계 못출 때 에 다 시 이 세상에 내려 오 사련 하 고 금 사 례 의 공과 죄를 슬려 상과 벌을 결 단 호 시 리 라 호 너 라

예수 - 하 놀에 오 르 시 던 발 자 최 가 잇 누 나 라
예수 - 하 놀에 오 르 실 때 에 그 발 노 뵈 으 신 들 에 발 자 최 나 셔 마 치 삭 인 듯 호 니 만 국 사 례 이 미 앙 그 압 희 가 절 호 호 그 들 을 삭 가 먹 으 면 빅 병 이 나 하 령 적 이

하 천

六十五

만흔지라 그 후에 회회국 사롬이 그 발자취 흔나흔
가져가녀 희례비당에 띄셔 공경흔고 발자취 흔나
흔이 썩어 지오 리와 산에 머물너 잇서 그 우희영당
을 지어 의중이 녀겨스 모흔노 고로 조비흔려오노
자 1 가히 할수업더라

십자가의 기모흔능과 신령흔자취 무궁무진

흔나라

십자가는 천주예수의 체상을 구흔신그릇시니 십
자가의 기모흔능과 신령흔자취이제니 큰히 무수
히 나타나 벅병을 못치고 마귀를 쫓고 죽은 사롬을

다시 살나논 지라 그런고로 모든 고우 1 다 도아 되
쳐 보복을 삼아 공정을 행하나라 뒤 뒤로 봉고호는
사 례이 십조 성호를 그리기 만호여 도 병을 못치고
죽은 이 를 살나고 마 귀를 뜻노 밑이 무수호나라

체 상이 못출 때에 천주 예수 1 다시 내려오사
턴 하고 금사 례 들을 다 심관호시 나 나라

턴주 1 임의 체 례 내 첫 신 즉 반 두 시 체 례 못츠
질 날이 잇 실지 라 체 례 못츠 실 때에 예수 1 하논
노 조 차 다시 내려오 시 겿 노 라 호시 나 그 데 즈 들이
못츠 오 뒤 어 누 때에 누 려 오 려 호시 누 잇 가 예수 1

하 천

六十六

닐은 사되 하논에잇는 현신도 그 때를 아지 못호는
나라호시고 그 때를 날은 지아니호시되 그 때에호
실일을 미리닐너올은 사되 세상이 장쳐 못출 때에
현하만국이 서로싸호고 서로죽이며 흉년이 들고
려역이 대치호며 지앙이 무수호야 사롬이 만히죽
고 바다히뒤쓸코산이 문히지며 온사히진등호고
하논이어즈러이움죽이며 빌월과 별이다 그 빛을
일코세상 못출 날이 나루매 하논노서 큰불이 누려
와 초목과 증승과 사롬을 다티오고 현주 1 무수호
현신을 명호사 현하그금의죽엇던 사롬을 불러너

여련주의 무궁홍신능으로 다시 살나시니 무덤속에
 에 섰어 후리된 몸이 경각스이에 본 몸을 일우고 현당
 에 잇던 영혼과 더욱에 잇던 영혼이 세상에 나와 각
 각 제 몸에 결합하여야 환연이 산 사람이 되니 이때에
 던신이 못사롬을 다리고 오리의 산목에 모도이고
 예수 | 못박려 구속호신 십자가 | 흘연 공중에 나
 라나 뵈니 착호사롬은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여야
 거호며 악호사롬은 십자가를 보고 죄를 성각하
 리나 엇지 놀나고 무셔워아니 호리 오련주 예수 |
 구름을 두시고 하늘로 오시니 못사롬이
 하련

눈으로 그 열물을 보고 귀로 그 소리 ^듣는지라
예수 - 세상에 피할 죄는 인성을 취하여 현주의 무
궁한 신권능과 위엄을 음초사다만인즉은 시고 점
손호시고 인내하시노 모든 덕으로써 우리 사물을
마루쳐 구속일을 공부하시더니 이때에 나르러는
그 위엄과 영광이 현지에 진동하여 당신지공지의
홍심을 현현히 나타내며 비심이라 예수 - 임의는
러림하시매 성모 마리아는 현주 좌현에 갖가이게
시고 무수 현현신은 차례로 용위하여 뵈신지라 현
하고 금사롬이 세상에 잇서 생각호바와 말호바와

히히히바 | 착하나 그러나 낫낫치 다 드러나 못사름
 이서로 그 현악을 알야 그리음이 업노리라 현주 |
 착흔사름을 상주어 그 옥신과 령흔을흔가지로 현
 당에 올나 사무궁흔부를 누리게 하시고 악흔사름
 을 벌흔야 그 옥신과 령흔을흔가지로 디옥에 노리
 오사무궁흔고로 음을 밧게 하시니 디옥은 영영이
 닻치 이고 현당은 무궁세에 니르노리라 현사름
 이므로 디주금사름이 주으며 현주 | 그 현악을 낫
 낫치 심환흔사상과 벌을 영의 영흔야 제시나 영지
 세 제 못출새에 다시 심환을흔시노르 디답흔디이
 하편

노현주 | 그 지의 지공은 심을 나타내시노연고 |
 니세상에 악흔사름도 부커론 누려종신도록즐거
 위흐노이잇고착흔사름도비천하야일성에고로
 이지내노자 | 잇스니사름이이런일을보고련다
 에죽저아니계신가의심^도고후공번되지못^도신
 가의심^도노고로현주 | 못사름압희셔그상과^을번
 공평이판형하시노니악흔사름도그중에흔두가
 지착흔일이잇기에현주 | 지극히공번되샤흔가
 지착흔일도잡지아니하시노일^이업노고로이세
 상의적은복을주샤그적은현을잡히시고죽은후

그러나 유익의 누림이 되고 평성의 악행은 유익의 누림이 되고
착행이 되고 중의에 행하는 지혜물의 잇스나 현주는
지극히 엄한 사행가지 지혜물도 별이나 나 현성이 업는
그러나 의제상의 점은 그로 음을 주사 그 점은 의물의
단련하고 고주는 후노 현당에 올나 사그 평성의 착
행일을 감하지는 주를 이 때에 모든 사롭이 다 패히
알게 하심 의오도 사롭이 제상에 잇실 때 노 그 음
을 알지 않 이 업서 악의 사롭도 것처로 착행의 현면음
이므로 그 착행은 노알며 착행 사롭도 그로 음을 밋
이 면음 이므로 다 악행은 노알아 사롭의 현악이 별

이 드러나지 아닌 그로턴 주 - 혼번공번되이심환
흐샤각각사롬의숨은현악을평빙히드러내샤련
하고금사롬으로호여공다셔로보고저로알아련
죽의지극히공번되신줄을이때에브야호로알게
호시노나라 혼사롬이므루티사롬의령혼은죽
지아니호야상과벌을납으려니와사롬의육신은
이제죽어호러이되엿시니엇지다시살야상과벌을
납노호티답호티육신이다시산다말숨은턴주예
수 - 친히입으로호신말숨이니반드시가히밧을
거시오호리치로성각호여보아도가히알거시니

려니 주 - 려니 뜻을 조성함 실 때 에 입은 가 온 어 로 조 차
 려신과 사 롱 과 만 물을 너 섰 시 니 임의 업 던 거 슬 너
 신 제 능 으 르 엿 지 임 의 잇 던 사 롱 을 다 시 살 니 지 못
 흐 시 리 오 소 령 혼 과 육 신 이 두 가 지 혼 디 합 함 여 야
 완 전 혼 사 롱 이 되 노 니 이 제 려 당 에 오 르 령 혼 이 비
 록 부 락 을 누 리 나 육 신 과 합 함 기 전 에 는 반 쪽 사 롱
 모 양 이 라 필 정 그 육 신 이 다 시 살 아 령 혼 과 합 함 여
 야 완 전 혼 사 롱 이 될 거 시 니 려 주 - 엿 지 려 당 에 잇
 는 착 혼 사 롱 을 반 쪽 으 르 두 시 리 오 소 사 롱 의 육 신
 을 영 영 신 살 게 마 려 혼 섰 너 니 이 제 주 는 거 손 다 롱 이

하 려

七十

아니라 원조의 죄로 인하여 죽으니 세상 못출새에
원조의 씨친 죄별도 못출업서 지나 원조의 죄별이
임의 못출신즉 본디 살게 마련호신옥신이엇지다
시사지 못호리오소 사롬이 착호일을호나 악호일
을호나 평호이 혼자호지 못호야 옥신이도 아호가
지르호나 마치비급하호는 사롬을 평호이 먹이
고적호나 혼자호지 못호야 반두시음식을손으로
가지고 발노거러가 석눈으로보고 입으로주노라
호여야 그주린사롬을가히 먹일거시니 그손과 발
과눈과 입이다 평호이를살아 호가지르공을세움이

아나야선련후이놈의죄물을도적하고적하나흔
 자후지못하야반두시발노거리가셔손으로그죄
 물가적은후에야가히도적질이되누니그발과손
 이다련후을살아후가지로죄를범함이아나야
 신이임의령후을살아공을세우고죄를지엇시나
 육신이맛당이령후을살아상을받고벌을입을지
 나라부활후후신은죄령후과함후엇년본몸이라
 만일본몸이아나오선몸이면이년죄업년몸을벌
 주고죄잇는몸은노후이오공업년몸을상주공
 잇는몸은비림이나엇지현주의지극히공번되신

법이 이러하니 오천자의 옥신이 다 시살매련주니
특별이 온 헤롤베르샤 처음 몸과 크게 달나 병신도
업고 늙은 모양도 업고 어린 모양도 업서다. 예수
의 모양과 같으니 예수는 착한 사람의 머리 되시고 착
한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되니 예수니 설흔 세 학에
부활한 사하논에 이르신 것으로 모든 착한 사람도 그
머리와 같으니 사설흔 세 학 모양이 되므로 그 귀는
이량 선하니 강건하며 그 열매가 아름답고 그 묘한
지라 련주니 - 드무궁한 신능으로 네 가지 큰 온 헤롤
주시니 하니 온무상 손흥이니니 칩도 아니하고 업도

아나호며병도업고그로음도업스며불에드지아
 나호그칼에쌍치아나호노그로다시죽노일이업
 서부궁히살미오호나호광명함이나옥신에적의
 이호영화로은빛치소사나령릉호그찬란호야히
 빛치서멧비나너호미오호나호신축함이니이세
 상몸과곳치무접지아나호그가비아악날개업서
 도싸르그카지아나호며도밋츠니무음으로가고
 적호는티노하본이나사히나억만리라도즉시이
 르러경익스이드기두리지아나호미오호나호후
 황황이니최에드들어가고돌의도들어가고모티

라도 잘 믿어 주니 나의 믿음이 우수하니 천신과 우수
한 형인 과환 가지로 예수로 믿어 시고 천당의 문을 다 무
엇이 부락은 빛아는 이로 상히도 힘 모양을 보그네
로 상히 가지에 영이 부락이 나고 입에 나고 상히 아름다운
맛을 먹고 고에 나고 상히 가지 향이 곧 맛하은 세상
의 더 할고 즐거은 일을 모도 합하여 할 사랑의 봄에
누려도 천당 부락의 만분의 일 분도 당치 못하노니
나의 나고 하려 유신의 부인고도 영영 하야 말하거
나의 영혼의 부락은 신의 천국에 석한 업시 너우도
이 나고 영의 말 나고 영영 하야 말하거 하니 영영 하야 상히

현주의 열정을 비와 무궁화향기를 맡고 만가지를
 거음을 누리 비를 수록 더욱 사랑하고 누릴 수록 더
 옥새로와 그 마음에 가득히 짓고 현주의 사랑은
 눈썹이 되여 현신과 성인으로 더 보려서로 등성
 이 되고 서로 벗이 되여 이리 더 시무궁히 즐기니 그
 존히 하고 영화로움이 어디 다시 비하리 오악은 사
 롬은 육신이 다시 살아 착한 사람과 상반하야 그 몸
 이 점그너렵고 흐리고 무겁고 흉악한지라 현주
 더욱에 누리워 무한하고 그 몸을 밝게 하시니 비록
 제 몸을 쓰져 죽고셔 하야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죽

노이만긋지 못하야 모든 악자 악악신이 거로이
고저르늘니 여불가온대잇서마치불속에너흔쇠
가안밭업시다불이됨과긋고소음에저린고기가
안밭업시다소음에저리임과긋하야저르치고서
르흔하며마귀는천방벽제로알렙드르하야무수
히난라하고소문으로상히늘나온모양을보고뒤
로상히벼락치노드하노소리톨듯고입으로상히
판가지득흔맛슬먹고고로상히온갓너렵고득흔
내암서물맛고온몸은압하고살며름으로하노이
에셔더하그창으로설은노이에셔더하그수분기에

후난이 에셔니호나련하만고에온가호동호호호호호
 과만가지애했호고로음을호의합호야호사람이
 어드디욱고로음을호의비호편호호호호호호호호
 당치못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음에쳐어한번나더호야미양을어늘호호호호호
 세상에삼져나셔잠간즐거음을위호호호호호호호
 호고로음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현주를참겨조금숙고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당에을나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거슬아조쉬온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련

어와 다시 나을 의약이 업서 이고 노음이 만 만년을
지나 드취음과 고억 만년을 지나도 못춤이 업서
무궁세가 되도록 이형벌수의 잇는 현훈과 후신의
죽어 업서 지지 아니 하니 이 려 현철유관 광정음을
더다 시비 호리 오호 노 나 라

현주 - 강성호 신의 심을 벌림이라

호사름이 므루 더 현주 - 본 더 비로 숨이 업서 스스
로 제 신자 - 라 호 니 엇지 호야 헨 나라 새에 모친이
잇서 나 제 시 다 호 노 보 더 압 호 더 구 세 주 예수 - 호
위에 두 형을 합 호야 제 시 나 호 나 현 주 형이 오 호

나 혼인 성이라 한 나라 때에 어리비속으로 나 신이
 온 오직 인성을 나타내 이 온 천 주 성은 무식로 브리스
 스로 계시 나 엇지 한 나라 때에 모친이 잇서 비로 소
 나사도 호리 오 예수 의 천 주 성은 형모의 아들이 아나
 오 오직 예수 의 인성으로 만 성모의 아들이 되시 나
 나라 혼 사 례 이 브루 티 예수 — 인도 법 시 나 계시
 나 엇지 혼 일 인 고 티 답 호 티 예수 의 몸 이 비 록 사 례
 의 몸 과 모 호 사 천 주 성 과 혼 위 에 합 호 셧 시 나 그 몸
 이 천 주 의 존 티 호 심 을 스 못 차 밧 으 신 지 라 천 주 의
 존 티 호 심 을 스 못 차 밧 으 신 몸 이 엇지 인도 로 팔 티

하련

七十五

암아나시리오반두시련주 | 친히내실거시오소
동신에셔나심은전능하신련주되심이나타나고
성모의티중으로나심은참사룸되심이나타나니
그럼프로련주성신의전능을인하야성모의조출
호신의로써예수의몸을일우샤원조의주손이되
시고우리와곳호혈떡이되시논고로원조의지은
죄와우리들의지은죄를가히예수호몸으로속하
거시오소인도르나신몸이아닌고로호노원조의
죄를부드리아나하야제시나리 호사룸이므로
티지극히복하신련주 | 지극히천호사룸과절합

호야 제심이엇지 맛당호리 오디답호디 현주와 사
 롬이 서로 합호 때 사 롬은 현주와 못치 눅하지고
 현주와 사 롬과 못치 누지지 아나 호니 비컨대 체
 상님금이 신하의 설을 왕비로 삼아 비합호면 그 너
 인의 누른 거 손 업서 적도 남금의 눅흔 거 손 눅흔 대
 로 잇슴과 못호니라 호사 롬이 므루디 예수 1 주
 으실 때 에 현주 성은 죽으심이 업고 응당인 성만 죽
 어 제시거 놓엇지 호야 현주 1 죽으시나 호 누 호디
 답호디 현주 성이 비록 죽지 못호셔 도 현주 성과인
 성을 합호신 몸이 죽어 제시나 비컨대 사 롬이 죽을

하 현

때에 그 영혼은 죽지 못하고 육신만 죽으니 그 육신
 이 영의 영혼은 드니브리 합하여 혼 사람이 된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날은 기를 육신이 죽었다 아니하고
 사람이 죽었다 흠과 못이 제 현주 예수 - 사람의
 몸과 합하여 혼이 되셨으니 그 몸이 죽으심을 보고
 현주 - 죽으시니 말이 불치 아니하니 오 신으로
 현주 예수 - 한번 죽은 것으로 음만 받으셔도 본세
 생 죄를 다 벗어 버리고 영혼 실거시어 놓으지만 고 만난
 을 벗어 죽기까지 하여 계신 고 뒤 압하여 현주 - 죽
 으신 뜻이 지극히 현하시니 대개 현주 - 사람을 사

랑흐시노모음이무궁부진흐샤다시너홀거시업
 게흐려흐심이오호턴죽－지극히높흐심과사름
 의죄가지극히중함을뵈고저흐심이오호당신이
 임의사름을위흐야죽기스지흐여제시나사름도
 턴죽을위흐야죽기스양치말나흐심이라호사
 림이흐가지죄만잇슬양이면당신이흐가지그로
 음만밖으쳐도죽호렷마노사름이죄를범치아나
 흐곳이업기에예수－거룩흐신몸에형벌을납지
 아나흐곳이업스시나라호예수－사름을위흐야
 저귀를턴죽형부외제스흐야드려희성을디신호

하편

七十七

시니희성이죽지아니하면죄스드리노레가되지
못흐노고로이밖곳치예수ㅣ죽음을밧으샤그죽
으신몸으로성부여죄스룬드리시니현중성부ㅣ
그죄스룬밧으샤사롬의죄를본전이샤흐야주시
니라현주ㅣ강성흐시기전에노사롬이고양으로
현주의제현하더니예수ㅣ제상에노리시매부귀
흐집에셔나지아니흐시고양의우리안희나샤양
과곳치제물이되려흐신고로그죽으실때에특별
이찬분쇄고양으로현주의죄스드리노날을본희
여고난을밧아죽으신지라이죽으신레를귀양하

야 현주교에셔 부궁세에 나루도록 예수 의 자룩호
신음으로 현주셔 제스 할야 드리노 나라

스므르 디 현주 - 엇지 할야 우리 나라 희노 리지 아
니 할시고 셔국에 노 리시며 스 현주의 교법이 이 제
야 우리 나라 희 왓노 노 디 답 할 디 현주 - 혼곳에 노
리시면 그 교법이 가히 현하에 퍼질 거시 오 스 셔국
유너 아 디 방에 노 리심은 그 나라 사 롱이 네 르브 디
현주 섬기기를 일삼아 현주의 빙성이 되노 지라
현주 - 친히 십계 드주시고 구세주를 허락 할야 디
양 현지 자 룬 보내 여 구속 할 실 연 유 룬 미리 알 지 할

신연고 — 나라신연주성고 — 우리나라희이제야
 온거슨연주 — 사롬을스랑흐시논무음이부족흐
 심이아나라연주 — 사롬두려연주고롤흐라흐시
 나형흐기와아나흐기논사롬의제잇고연주 — 강
 박흐야식이시논일일이업논고르고착흐드제공이
 되고그악흐드제죄가되누나연주고롤사롬이스
 스로맛드러형치아나흐면비루천백년이되여드
 러지지못흐를거시오신연주고 — 중국에온지오래
 여한|나라애에도나오고당나라초년에드나오고
 그후명나라애에도년흐야나오고조선애도서척

이나 온지 백여년이 되엿시니 밋어 힘흐는 사롬이
드문고 르런 주교 1 퍼지기 더 뒤고 듯논 이 드는게
드러시니 엿지런 주의 뜻이 되며 엿지런 주교 1 이
제야 나뵈다 날으리오

런 하 사롬이 흐름 곳 하야 아담의 죄를 만민이
다 무들고 예수의 공을 만민이 다 남느니라

흐 사롬이 므루되 원조 흐 사롬의 죄를 만민이 엿지
흐야 무들며 예수 흐름 위 의 공을 만민이 엿지 흐야 남
논고 뒤 답흐 더 아담은 만민의 조상이 되논고 르고
죄의 해를 만세는 손이다 밋고 예수는 만민의 구세

죽되 시는고그공의은익을만세사롬이다남은
니비견머사롬의오장류부의수지빅테흐몸에부
흔고로오장에병이들면은몸이그해론납머리
드앓흐고입맛드변흐고얼물빛드상흐는지라만
일신통흐약을먹어오장의병을긋치면머리드식
훤흐고지절드가변압고입맛드드라오고얼물빛
드드회지는지라현하그금사롬이모드아담^하몸
에셔삼져나흐혈맥이되나아담의죄는오장의병
긋흐야못사롬이다그해론납고예수의구속^하신
공은신통흐약긋흐야못사롬이그^하힘의^하다^하나

의 소훈 사롬이므로 디턴죽의말숨이 비록중대
하니 우리나 다 사롬은 현죽의 허신일과 디턴죽의 허
신말숨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키로 뜻지 못하고 다
만척국 사롬의말만 드롬이라척국 사롬의말이을
흔줄을 엿지알나 오디답 허디척국 사롬들이 부모
동성을 써나 구만리 바다희비를 두고 현신만고 허
야 열번죽을 번허고 허번살아 중국에나 구러턴죽
고로 전 허엿시나 아모 사롬이라 도저 뜻말 허자 허
고부러 십리로 갈이가 업거 든 엿지거 뜻말을 허자
허고 구만리에 죽기로 무릅쓰고 나을 사롬이잇스

하현

八十

리오후후사롬이나나왔다흐들엇지천백사롬이
다그러호리오호현주교를전호노사롬이다늘접
그착호야현디만불의일을복이통달호고도덕이
빛나나엇지현주교의중대호말슴을허탄호게호
리오호현주십제중에큰관계잇는거긔말이큰죄
라날넛시나그죄거긔말도죄가되거든호물며엇
지현주의아나호신말슴을호엇다호며현주의아
나호신일을호엇다호리오현주교를전호노사롬
들이다른사롬드려십제를직히여거긔말을말나
호면셔엇지스귀가거긔말을호야지중지대호신

편주의 말씀을 그릇 취디우에 누릴 죄를 짐짓 범하
리오 쓰보지 못하고 뜻지 못하였노라 하야 맛당이
밋을 말슴을 밋지아나 하고 논거시 큰 죄가 되니 늘을
양이면 세상 남금이 빙형의게 전고의 른음을 노리
려 하시면 반드시 문적 갓가 온 신하의게 말슴 하야
츠츠 감영에 전하고 감영에셔 논각 음에 전하고 각
읍에셔 논면 임을 본부 하야 빙형들의게 전하나니
만일 그 빙형이 뜻고른 하디나라 감금의 벌 받드내
논으로 보지 못하고 남금의 말슴 드내 귀로 듣지 못
하였노라 하야 밋지아나 하고 병형치아나 하면 그

하천

八十一

죄악이다. ¹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 ²⁴ ²⁵ ²⁶ ²⁷ ²⁸ ²⁹ ³⁰ ³¹ ³² ³³ ³⁴ ³⁵ ³⁶ ³⁷ ³⁸ ³⁹ ⁴⁰ ⁴¹ ⁴² ⁴³ ⁴⁴ ⁴⁵ ⁴⁶ ⁴⁷ ⁴⁸ ⁴⁹ ⁵⁰ ⁵¹ ⁵² ⁵³ ⁵⁴ ⁵⁵ ⁵⁶ ⁵⁷ ⁵⁸ ⁵⁹ ⁶⁰ ⁶¹ ⁶² ⁶³ ⁶⁴ ⁶⁵ ⁶⁶ ⁶⁷ ⁶⁸ ⁶⁹ ⁷⁰ ⁷¹ ⁷² ⁷³ ⁷⁴ ⁷⁵ ⁷⁶ ⁷⁷ ⁷⁸ ⁷⁹ ⁸⁰ ⁸¹ ⁸² ⁸³ ⁸⁴ ⁸⁵ ⁸⁶ ⁸⁷ ⁸⁸ ⁸⁹ ⁹⁰ ⁹¹ ⁹² ⁹³ ⁹⁴ ⁹⁵ ⁹⁶ ⁹⁷ ⁹⁸ ⁹⁹ ¹⁰⁰ ¹⁰¹ ¹⁰² ¹⁰³ ¹⁰⁴ ¹⁰⁵ ¹⁰⁶ ¹⁰⁷ ¹⁰⁸ ¹⁰⁹ ¹¹⁰ ¹¹¹ ¹¹² ¹¹³ ¹¹⁴ ¹¹⁵ ¹¹⁶ ¹¹⁷ ¹¹⁸ ¹¹⁹ ¹²⁰ ¹²¹ ¹²² ¹²³ ¹²⁴ ¹²⁵ ¹²⁶ ¹²⁷ ¹²⁸ ¹²⁹ ¹³⁰ ¹³¹ ¹³² ¹³³ ¹³⁴ ¹³⁵ ¹³⁶ ¹³⁷ ¹³⁸ ¹³⁹ ¹⁴⁰ ¹⁴¹ ¹⁴² ¹⁴³ ¹⁴⁴ ¹⁴⁵ ¹⁴⁶ ¹⁴⁷ ¹⁴⁸ ¹⁴⁹ ¹⁵⁰ ¹⁵¹ ¹⁵² ¹⁵³ ¹⁵⁴ ¹⁵⁵ ¹⁵⁶ ¹⁵⁷ ¹⁵⁸ ¹⁵⁹ ¹⁶⁰ ¹⁶¹ ¹⁶² ¹⁶³ ¹⁶⁴ ¹⁶⁵ ¹⁶⁶ ¹⁶⁷ ¹⁶⁸ ¹⁶⁹ ¹⁷⁰ ¹⁷¹ ¹⁷² ¹⁷³ ¹⁷⁴ ¹⁷⁵ ¹⁷⁶ ¹⁷⁷ ¹⁷⁸ ¹⁷⁹ ¹⁸⁰ ¹⁸¹ ¹⁸² ¹⁸³ ¹⁸⁴ ¹⁸⁵ ¹⁸⁶ ¹⁸⁷ ¹⁸⁸ ¹⁸⁹ ¹⁹⁰ ¹⁹¹ ¹⁹² ¹⁹³ ¹⁹⁴ ¹⁹⁵ ¹⁹⁶ ¹⁹⁷ ¹⁹⁸ ¹⁹⁹ ²⁰⁰ ²⁰¹ ²⁰² ²⁰³ ²⁰⁴ ²⁰⁵ ²⁰⁶ ²⁰⁷ ²⁰⁸ ²⁰⁹ ²¹⁰ ²¹¹ ²¹² ²¹³ ²¹⁴ ²¹⁵ ²¹⁶ ²¹⁷ ²¹⁸ ²¹⁹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⁴⁵¹ ⁴⁵² ⁴⁵³ ⁴⁵⁴ ⁴⁵⁵ ⁴⁵⁶ ⁴⁵⁷ ⁴⁵⁸ ⁴⁵⁹ ⁴⁶⁰ ⁴⁶¹ ⁴⁶² ⁴⁶³ ⁴⁶⁴ ⁴⁶⁵ ⁴⁶⁶ ⁴⁶⁷ ⁴⁶⁸ ⁴⁶⁹ ⁴⁷⁰ ⁴⁷¹ ⁴⁷² ⁴⁷³ ⁴⁷⁴ ⁴⁷⁵ ⁴⁷⁶ ⁴⁷⁷ ⁴⁷⁸ ⁴⁷⁹ ⁴⁸⁰ ⁴⁸¹ ⁴⁸² ⁴⁸³ ⁴⁸⁴ ⁴⁸⁵ ⁴⁸⁶ ⁴⁸⁷ ⁴⁸⁸ ⁴⁸⁹ ⁴⁹⁰ ⁴⁹¹ ⁴⁹² ⁴⁹³ ⁴⁹⁴ ⁴⁹⁵ ⁴⁹⁶ ⁴⁹⁷ ⁴⁹⁸ ⁴⁹⁹ ⁵⁰⁰ ⁵⁰¹ ⁵⁰² ⁵⁰³ ⁵⁰⁴ ⁵⁰⁵ ⁵⁰⁶ ⁵⁰⁷ ⁵⁰⁸ ⁵⁰⁹ ⁵¹⁰ ⁵¹¹ ⁵¹² ⁵¹³ ⁵¹⁴ ⁵¹⁵ ⁵¹⁶ ⁵¹⁷ ⁵¹⁸ ⁵¹⁹ ⁵²⁰ ⁵²¹ ⁵²² ⁵²³ ⁵²⁴ ⁵²⁵ ⁵²⁶ ⁵²⁷ ⁵²⁸ ⁵²⁹ ⁵³⁰ ⁵³¹ ⁵³² ⁵³³ ⁵³⁴ ⁵³⁵ ⁵³⁶ ⁵³⁷ ⁵³⁸ ⁵³⁹ ⁵⁴⁰ ⁵⁴¹ ⁵⁴² ⁵⁴³ ⁵⁴⁴ ⁵⁴⁵ ⁵⁴⁶ ⁵⁴⁷ ⁵⁴⁸ ⁵⁴⁹ ⁵⁵⁰ ⁵⁵¹ ⁵⁵² ⁵⁵³ ⁵⁵⁴ ⁵⁵⁵ ⁵⁵⁶ ⁵⁵⁷ ⁵⁵⁸ ⁵⁵⁹ ⁵⁶⁰ ⁵⁶¹ ⁵⁶² ⁵⁶³ ⁵⁶⁴ ⁵⁶⁵ ⁵⁶⁶ ⁵⁶⁷ ⁵⁶⁸ ⁵⁶⁹ ⁵⁷⁰ ⁵⁷¹ ⁵⁷² ⁵⁷³ ⁵⁷⁴ ⁵⁷⁵ ⁵⁷⁶ ⁵⁷⁷ ⁵⁷⁸ ⁵⁷⁹ ⁵⁸⁰ ⁵⁸¹ ⁵⁸² ⁵⁸³ ⁵⁸⁴ ⁵⁸⁵ ⁵⁸⁶ ⁵⁸⁷ ⁵⁸⁸ ⁵⁸⁹ ⁵⁹⁰ ⁵⁹¹ ⁵⁹² ⁵⁹³ ⁵⁹⁴ ⁵⁹⁵ ⁵⁹⁶ ⁵⁹⁷ ⁵⁹⁸ ⁵⁹⁹ ⁶⁰⁰ ⁶⁰¹ ⁶⁰² ⁶⁰³ ⁶⁰⁴ ⁶⁰⁵ ⁶⁰⁶ ⁶⁰⁷ ⁶⁰⁸ ⁶⁰⁹ ⁶¹⁰ ⁶¹¹ ⁶¹² ⁶¹³ ⁶¹⁴ ⁶¹⁵ ⁶¹⁶ ⁶¹⁷ ⁶¹⁸ ⁶¹⁹ ⁶²⁰ ⁶²¹ ⁶²² ⁶²³ ⁶²⁴ ⁶²⁵ ⁶²⁶ ⁶²⁷ ⁶²⁸ ⁶²⁹ ⁶³⁰ ⁶³¹ ⁶³² ⁶³³ ⁶³⁴ ⁶³⁵ ⁶³⁶ ⁶³⁷ ⁶³⁸ ⁶³⁹ ⁶⁴⁰ ⁶⁴¹ ⁶⁴² ⁶⁴³ ⁶⁴⁴ ⁶⁴⁵ ⁶⁴⁶ ⁶⁴⁷ ⁶⁴⁸ ⁶⁴⁹ ⁶⁵⁰ ⁶⁵¹ ⁶⁵² ⁶⁵³ ⁶⁵⁴ ⁶⁵⁵ ⁶⁵⁶ ⁶⁵⁷ ⁶⁵⁸ ⁶⁵⁹ ⁶⁶⁰ ⁶⁶¹ ⁶⁶² ⁶⁶³ ⁶⁶⁴ ⁶⁶⁵ ⁶⁶⁶ ⁶⁶⁷ ⁶⁶⁸ ⁶⁶⁹ ⁶⁷⁰ ⁶⁷¹ ⁶⁷² ⁶⁷³ ⁶⁷⁴ ⁶⁷⁵ ⁶⁷⁶ ⁶⁷⁷ ⁶⁷⁸ ⁶⁷⁹ ⁶⁸⁰ ⁶⁸¹ ⁶⁸² ⁶⁸³ ⁶⁸⁴ ⁶⁸⁵ ⁶⁸⁶ ⁶⁸⁷ ⁶⁸⁸ ⁶⁸⁹ ⁶⁹⁰ ⁶⁹¹ ⁶⁹² ⁶⁹³ ⁶⁹⁴ ⁶⁹⁵ ⁶⁹⁶ ⁶⁹⁷ ⁶⁹⁸ ⁶⁹⁹ ⁷⁰⁰ ⁷⁰¹ ⁷⁰² ⁷⁰³ ⁷⁰⁴ ⁷⁰⁵ ⁷⁰⁶ ⁷⁰⁷ ⁷⁰⁸ ⁷⁰⁹ ⁷¹⁰ ⁷¹¹ ⁷¹² ⁷¹³ ⁷¹⁴ ⁷¹⁵ ⁷¹⁶ ⁷¹⁷ ⁷¹⁸ ⁷¹⁹ ⁷²⁰ ⁷²¹ ⁷²² ⁷²³ ⁷²⁴ ⁷²⁵ ⁷²⁶ ⁷²⁷ ⁷²⁸ ⁷²⁹ ⁷³⁰ ⁷³¹ ⁷³² ⁷³³ ⁷³⁴ ⁷³⁵ ⁷³⁶ ⁷³⁷ ⁷³⁸ ⁷³⁹ ⁷⁴⁰ ⁷⁴¹ ⁷⁴² ⁷⁴³ ⁷⁴⁴ ⁷⁴⁵ ⁷⁴⁶ ⁷⁴⁷ ⁷⁴⁸ ⁷⁴⁹ ⁷⁵⁰ ⁷⁵¹ ⁷⁵² ⁷⁵³ ⁷⁵⁴ ⁷⁵⁵ ⁷⁵⁶ ⁷⁵⁷ ⁷⁵⁸ ⁷⁵⁹ ⁷⁶⁰ ⁷⁶¹ ⁷⁶² ⁷⁶³ ⁷⁶⁴ ⁷⁶⁵ ⁷⁶⁶ ⁷⁶⁷ ⁷⁶⁸ ⁷⁶⁹ ⁷⁷⁰ ⁷⁷¹ ⁷⁷² ⁷⁷³ ⁷⁷⁴ ⁷⁷⁵ ⁷⁷⁶ ⁷⁷⁷ ⁷⁷⁸ ⁷⁷⁹ ⁷⁸⁰ ⁷⁸¹ ⁷⁸² ⁷⁸³ ⁷⁸⁴ ⁷⁸⁵ ⁷⁸⁶ ⁷⁸⁷ ⁷⁸⁸ ⁷⁸⁹ ⁷⁹⁰ ⁷⁹¹ ⁷⁹² ⁷⁹³ ⁷⁹⁴ ⁷⁹⁵ ⁷⁹⁶ ⁷⁹⁷ ⁷⁹⁸ ⁷⁹⁹ ⁸⁰⁰ ⁸⁰¹ ⁸⁰² ⁸⁰³ ⁸⁰⁴ ⁸⁰⁵ ⁸⁰⁶ ⁸⁰⁷ ⁸⁰⁸ ⁸⁰⁹ ⁸¹⁰ ⁸¹¹ ⁸¹² ⁸¹³ ⁸¹⁴ ⁸¹⁵ ⁸¹⁶ ⁸¹⁷ ⁸¹⁸ ⁸¹⁹ ⁸²⁰ ⁸²¹ ⁸²² ⁸²³ ⁸²⁴ ⁸²⁵ ⁸²⁶ ⁸²⁷ ⁸²⁸ ⁸²⁹ ⁸³⁰ ⁸³¹ ⁸³² ⁸³³ ⁸³⁴ ⁸³⁵ ⁸³⁶ ⁸³⁷ ⁸³⁸ ⁸³⁹ ⁸⁴⁰ ⁸⁴¹ ⁸⁴² ⁸⁴³ ⁸⁴⁴ ⁸⁴⁵ ⁸⁴⁶ ⁸⁴⁷ ⁸⁴⁸ ⁸⁴⁹ ⁸⁵⁰ ⁸⁵¹ ⁸⁵² ⁸⁵³ ⁸⁵⁴ ⁸⁵⁵ ⁸⁵⁶ ⁸⁵⁷ ⁸⁵⁸ ⁸⁵⁹ ⁸⁶⁰ ⁸⁶¹ ⁸⁶² ⁸⁶³ ⁸⁶⁴ ⁸⁶⁵ ⁸⁶⁶ ⁸⁶⁷ ⁸⁶⁸ ⁸⁶⁹ ⁸⁷⁰ ⁸⁷¹ ⁸⁷² ⁸⁷³ ⁸⁷⁴ ⁸⁷⁵ ⁸⁷⁶ ⁸⁷⁷ ⁸⁷⁸ ⁸⁷⁹ ⁸⁸⁰ ⁸⁸¹ ⁸⁸² ⁸⁸³ ⁸⁸⁴ ⁸⁸⁵ ⁸⁸⁶ ⁸⁸⁷ ⁸⁸⁸ ⁸⁸⁹ ⁸⁹⁰ ⁸⁹¹ ⁸⁹² ⁸⁹³ ⁸⁹⁴ ⁸⁹⁵ ⁸⁹⁶ ⁸⁹⁷ ⁸⁹⁸ ⁸⁹⁹ ⁹⁰⁰ ⁹⁰¹ ⁹⁰² ⁹⁰³ ⁹⁰⁴ ⁹⁰⁵ ⁹⁰⁶ ⁹⁰⁷ ⁹⁰⁸ ⁹⁰⁹ ⁹¹⁰ ⁹¹¹ ⁹¹² ⁹¹³ ⁹¹⁴ ⁹¹⁵ ⁹¹⁶ ⁹¹⁷ ⁹¹⁸ ⁹¹⁹ ⁹²⁰ ⁹²¹ ⁹²² ⁹²³ ⁹²⁴ ⁹²⁵ ⁹²⁶ ⁹²⁷ ⁹²⁸ ⁹²⁹ ⁹³⁰ ⁹³¹ ⁹³² ⁹³³ ⁹³⁴ ⁹³⁵ ⁹³⁶ ⁹³⁷ ⁹³⁸ ⁹³⁹ ⁹⁴⁰ ⁹⁴¹ ⁹⁴² ⁹⁴³ ⁹⁴⁴ ⁹⁴⁵ ⁹⁴⁶ ⁹⁴⁷ ⁹⁴⁸ ⁹⁴⁹ ⁹⁵⁰ ⁹⁵¹ ⁹⁵² ⁹⁵³ ⁹⁵⁴ ⁹⁵⁵ ⁹⁵⁶ ⁹⁵⁷ ⁹⁵⁸ ⁹⁵⁹ ⁹⁶⁰ ⁹⁶¹ ⁹⁶² ⁹⁶³ ⁹⁶⁴ ⁹⁶⁵ ⁹⁶⁶ ⁹⁶⁷ ⁹⁶⁸ ⁹⁶⁹ ⁹⁷⁰ ⁹⁷¹ ⁹⁷² ⁹⁷³ ⁹⁷⁴ ⁹⁷⁵ ⁹⁷⁶ ⁹⁷⁷ ⁹⁷⁸ ⁹⁷⁹ ⁹⁸⁰ ⁹⁸¹ ⁹⁸² ⁹⁸³ ⁹⁸⁴ ⁹⁸⁵ ⁹⁸⁶ ⁹⁸⁷ ⁹⁸⁸ ⁹⁸⁹ ⁹⁹⁰ ⁹⁹¹ ⁹⁹² ⁹⁹³ ⁹⁹⁴ ⁹⁹⁵ ⁹⁹⁶ ⁹⁹⁷ ⁹⁹⁸ ⁹⁹⁹ ¹⁰⁰⁰ ¹⁰⁰¹ ¹⁰⁰² ¹⁰⁰³ ¹⁰⁰⁴ ¹⁰⁰⁵ ¹⁰⁰⁶ ¹⁰⁰⁷ ¹⁰⁰⁸ ¹⁰⁰⁹ ¹⁰¹⁰ ¹⁰¹¹ ¹⁰¹² ¹⁰¹³ ¹⁰¹⁴ ¹⁰¹⁵ ¹⁰¹⁶ ¹⁰¹⁷ ¹⁰¹⁸ ¹⁰¹⁹ ¹⁰²⁰ ¹⁰²¹ ¹⁰²² ¹⁰²³ ¹⁰²⁴ ¹⁰²⁵ ¹⁰²⁶ ¹⁰²⁷ ¹⁰²⁸ ¹⁰²⁹ ¹⁰³⁰ ¹⁰³¹ ¹⁰³² ¹⁰³³ ¹⁰³⁴ ¹⁰³⁵ ¹⁰³⁶ ¹⁰³⁷ ¹⁰³⁸ ¹⁰³⁹ ¹⁰⁴⁰ ¹⁰⁴¹ ¹⁰⁴² ¹⁰⁴³ ¹⁰⁴⁴ ¹⁰⁴⁵ ¹⁰⁴⁶ ¹⁰⁴⁷ ¹⁰⁴⁸ ¹⁰⁴⁹ ¹⁰⁵⁰ ¹⁰⁵¹ ¹⁰⁵² ¹⁰⁵³ ¹⁰⁵⁴ ¹⁰⁵⁵ ¹⁰⁵⁶ ¹⁰⁵⁷ ¹⁰⁵⁸ ¹⁰⁵⁹ ¹⁰⁶⁰ ¹⁰⁶¹ ¹⁰⁶² ¹⁰⁶³ ¹⁰⁶⁴ ¹⁰⁶⁵ ¹⁰⁶⁶ ¹⁰⁶⁷ ¹⁰⁶⁸ ¹⁰⁶⁹ ¹⁰⁷⁰ ¹⁰⁷¹ ¹⁰⁷² ¹⁰⁷³ ¹⁰⁷⁴ ¹⁰⁷⁵ ¹⁰⁷⁶ ¹⁰⁷⁷ ¹⁰⁷⁸ ¹⁰⁷⁹ ¹⁰⁸⁰ ¹⁰⁸¹ ¹⁰⁸² ¹⁰⁸³ ¹⁰⁸⁴ ¹⁰⁸⁵ ¹⁰⁸⁶ ¹⁰⁸⁷ ¹⁰⁸⁸ ¹⁰⁸⁹ ¹⁰⁹⁰ ¹⁰⁹¹ ¹⁰⁹² ¹⁰⁹³ ¹⁰⁹⁴ ¹⁰⁹⁵ ¹⁰⁹⁶ ¹⁰⁹⁷ ¹⁰⁹⁸ ¹⁰⁹⁹ ¹¹⁰⁰ ¹¹⁰¹ ¹¹⁰² ¹¹⁰³ ¹¹⁰⁴ ¹¹⁰⁵ ¹¹⁰⁶ ¹¹⁰⁷ ¹¹⁰⁸ ¹¹⁰⁹ ¹¹¹⁰ ¹¹¹¹ ¹¹¹² ¹¹¹³ ¹¹¹⁴ ¹¹¹⁵ ¹¹¹⁶ ¹¹¹⁷ ¹¹¹⁸ ¹¹¹⁹ ¹¹²⁰ ¹¹²¹ ¹¹²² ¹¹²³ ¹¹²⁴ ¹¹²⁵ ¹¹²⁶ ¹¹²⁷ ¹¹²⁸ ¹¹²⁹ ¹¹³⁰ ¹¹³¹ ¹¹³² ¹¹³³ ¹¹³⁴ ¹¹³⁵ ¹¹³⁶ ¹¹³⁷ ¹¹³⁸ ¹¹³⁹ ¹¹⁴⁰ ¹¹⁴¹ ¹¹⁴² ¹¹⁴³ ¹¹⁴⁴ ¹¹⁴⁵ ¹¹⁴⁶ ¹¹⁴⁷ ¹¹⁴⁸ ¹¹⁴⁹ ¹¹⁵⁰ ¹¹⁵¹ ¹¹⁵² ¹¹⁵³ ¹¹⁵⁴ ¹¹⁵⁵ ¹¹⁵⁶ ¹¹⁵⁷ ¹¹⁵⁸ ¹¹⁵⁹ ¹¹⁶⁰ ¹¹⁶¹ ¹¹⁶² ¹¹⁶³ ¹¹⁶⁴ ¹¹⁶⁵ ¹¹⁶⁶ ¹¹⁶⁷ ¹¹⁶⁸ ¹¹⁶⁹ ¹¹⁷⁰ ¹¹⁷¹ ¹¹⁷² ¹¹⁷³ ¹¹⁷⁴ ¹¹⁷⁵ ¹¹⁷⁶ ¹¹⁷⁷ ¹¹⁷⁸ ¹¹⁷⁹ ¹¹⁸⁰ ¹¹⁸¹ ¹¹⁸² ¹¹⁸³ ¹¹⁸⁴ ¹¹⁸⁵ ¹¹⁸⁶ ¹¹⁸⁷ ¹¹⁸⁸ ¹¹⁸⁹ ¹¹⁹⁰ ¹¹⁹¹ ¹¹⁹² ¹¹⁹³ ¹¹⁹⁴ ¹¹⁹⁵ ¹¹⁹⁶ ¹¹⁹⁷ ¹¹⁹⁸ ¹¹⁹⁹ ¹²⁰⁰ ¹²⁰¹ ¹²⁰² ¹²⁰³ ¹²⁰⁴ ¹²⁰⁵ ¹²⁰⁶ ¹²⁰⁷ ¹²⁰⁸ ¹²⁰⁹ ¹²¹⁰ ¹²¹¹ ¹²¹² ¹²¹³ ¹²¹⁴ ¹²¹⁵ ¹²¹⁶ ¹²¹⁷ ¹²¹⁸ ¹²¹⁹ ¹²²⁰ ¹²²¹ ¹²²² ¹²²³ ¹²²⁴ ¹²²⁵ ¹²²⁶ ¹²²⁷ ¹²²⁸ ¹²²⁹ ¹²³⁰ ¹²³¹ ¹²³² ¹²³³ ¹²³⁴ ¹²³⁵ ¹²³⁶ ¹²³⁷ ¹²³⁸ ¹²³⁹ ¹²⁴⁰ ¹²⁴¹ ¹²⁴² ¹²⁴³ ¹²⁴⁴ ¹²⁴⁵ ¹²⁴⁶ ¹²⁴⁷ ¹²⁴⁸ ¹²⁴⁹ ¹²⁵⁰ ¹²⁵¹ ¹²⁵² ¹²⁵³ ¹²⁵⁴ ¹²⁵⁵ ¹²⁵⁶ ¹²⁵⁷ ¹²⁵⁸ ¹²⁵⁹ ¹²⁶⁰ ¹²⁶¹ ¹²⁶² ¹²⁶³ ¹²⁶⁴ ¹²⁶⁵ ¹²⁶⁶ ¹²⁶⁷ ¹²⁶⁸ ¹²⁶⁹ ¹²⁷⁰ ¹²⁷¹ ¹²⁷² ¹²⁷³ ¹²⁷⁴ ¹²⁷⁵ ¹²⁷⁶ ¹²⁷⁷ ¹²⁷⁸ ¹²⁷⁹ ¹²⁸⁰ ¹²⁸¹ ¹²⁸² ¹²⁸³ ¹²⁸⁴ ¹²⁸⁵ ¹²⁸⁶ ¹²⁸⁷ ¹²⁸⁸ ¹²⁸⁹ ¹²⁹⁰ ¹²⁹¹ ¹²⁹² ¹²⁹³ ¹²⁹⁴ ¹²⁹⁵ ¹²⁹⁶ ¹²⁹⁷ ¹²⁹⁸ ¹²⁹⁹ ¹³⁰⁰ ¹³⁰¹ ¹³⁰² ¹³⁰³ ¹³⁰⁴ ¹³⁰⁵ ¹³⁰⁶ ¹³⁰⁷ ¹³⁰⁸ ¹³⁰⁹ ¹³¹⁰ ¹³¹¹ ¹³¹² ¹³¹³ ¹³¹⁴ ¹³¹⁵ ¹³¹⁶ ¹³¹⁷ ¹³¹⁸ ¹³¹⁹ ¹³²⁰ ¹³²¹ ¹³²² ¹³²³ ¹³²⁴ ¹³²⁵ ¹³²⁶ ¹³²⁷ ¹³²⁸ ¹³²⁹ ¹³³⁰ ¹³³¹ ¹³³² ¹³³³ ¹³³⁴ ¹³³⁵ ¹³³⁶ ¹³³⁷ ¹³³⁸ ¹³³⁹ ¹³⁴⁰ ¹³⁴¹ ¹³⁴² ¹³⁴³ ¹³⁴⁴ ¹³⁴⁵ ¹³

호고엿서 지지 못호는 줄을 알며 호고령호의 반도
 시현죽여 무궁호는 생벌을 줄을 알았시니 엿지어
 렵다 핑제 호야 성포를 평의 회와 나 호리 호는 영
 이면 모진 불이 스면으로 부터 호는 몸이 조곰 달
 지라도 그 불 맞고 나야 살터이면 엿지어 렵다
 호야 나가 지아니 호며 범이 뒤호로 뜻차 호는 맛
 다 가 넘어 질지라도 나야 살터이면 엿지어 렵
 다 호야 다라나 지아니 호리 오슬르다 이 잠간 세 상
 예 목숨을 구호려 호야 온갓어려 온일을 헤지아니
 호기든 호를 먹어 만세 예 목숨 구호기통 위 호야는

하현

사십

엇지 어렵다 할야 힘쓰지아나 할의오오히려심히
너려본일도업누나라 호사롬이므루되 현중심
계중에그룬적물을가지지말나 할시고놈의안히
로범치말나 할며 제시나가난호사롬이그룬적물
을아나가지고엇지살며절문사롬이녀식을범치
아나고엇지전되리오되답호되사롬이그룬노릇
슬흔지라도다부자 | 되지못할며을흔노릇슬흔
기로다참어죽으리오호저물은현주 | 사롬의게
주시노거시나 현주를섬기고을흔노릇호노이로
현주 | 엇지참머죽게호시리오호사롬이제안히

만잇스면혹호거든엇지놈의안히물범호는거시
 을다호라불의의지물과놈의안히물범호는즐거
 음이현당즐거음과엇너호며불의의지물과놈의
 안히물범호아나호는어려음이니욕고로음의비
 호야엇너호리오번의호호세상에아직즐거음을
 취호다가무궁호즐거음을일코잠간어려움을호
 호다가무궁호고로음을밧고적호니심히미련호
 일이나나나슬드다세생사름이잠간성리를위호
 야온갓고로음을라적거용스호는이호곡수철엇
 기를위호야손발에되가나고만신에살을호는고

장스호노이노돈낭느리기를위호야동우물무름
쓰고주야에분주호거든이제현당의무궁호부락
을엇고디우의무한호양화면기를위호야잠간슈
의물어협다호라호를며이공부노농스와장스의
슈고와곳지아니호니엇지농스호기곳치크와삼
을을나며장스호기곳치주야에분주호리오외속
일일공공슈고를호야정은리를엇거니와우리공부
노정은슈고큰복을엇으며잠간크로음으로영
영호를거음을엇으니엇지사름마다이공부를합
쓰지아니호리오다만사름의힘이부주호야참(의

영광을 주시기 어렵다. 이 난이려 위도 쉬은 법이
잇스나 천주의 명령을 그리 착한 공부 하는 이
천주 - 엇지도 아 주지 아니 하시리오 천주 - 임의
성명을 주시매 반 두 시 성명 기 르는 음식을 주시고
몸을 주시매 반 두 시 몸에 남는 의복을 주심과 또
입의 영혼을 주시매 반 두 시 영혼의 착한 공부 하는
영광을 주시나 나라

사람이 천주의 뜻을 드루면 주시 밋어 봉행할지
나라

홍사름이 이르되 이 제 천주의 뜻을 드루 나 맛당이 밋

하 천

八十四

어찌할수없이 이르되 찬찬이리년브러시작호면엇더
 호되디답호되 기쁘호면부리그호호노호호기
 엇지죽음은못호그리년을기두리호^리죽식이부모
 를싫기려호머엇지호노인못호그리호버리호호
 노라호리오이제현주－세상사공의공번원부모
 가되시나임의부모되시노줄을알고엇지그자리
 에서성가지아나호리오이왕에죄를만히짓고호
 히려부족호야호날이라드죄를더짓고현주의은
 혜를뵈아착호공마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실노 허말이 오우 기슬흔 뵈게 니엇지 리년인 들츿
흐라 노모음이 잇스리 오슬드다 이리 혼사 롬들이
흐르되 고잇흔되 고 혼히 되 고 두히 되 여죄악이 너
옥집흔 스루 천주 | 너 옥벌니 흐사 착흔 공부론 힘
흐기 너 옥어려울 지라 리년이지 나면 쉰 리년을 기
드리다가 될 정그 모양으로 주어 몸은 날 속예 드러
가고 령흔은 디옥예 누리 매 리년이다 시업스리니
그디 정예 누리려 노 리년을 기 두린다 혼말이 무어
시유익 흐리 오비유 권대 독속예 잇노 물은 풍조로
려 너 여흔 번후고 두번후고 천만 번을 되 나면 될 정

그 독에 물이 업서 질 거시오 사름이 쇠상에 삼겨나
흐르 지나가고 잇흔 지나가고 천만 날이 지나가면
칠정 죽을 괴약이 나뉠지니 독의 물이 무른 거슬 보
고 엇지나 흥 흥즈가 그 물을 업서 흐엿다 흐리 오반
다 시 쳇 흥즈 브터 물이 업서 진다 흘 거시오 사름의
죽은 거슬 보고 엇지 죽은 날이야 죽엿다 흐리 오반
두 시나 년 날 브터 죽어 간다 날을 지라 그러므로 사
름이 쇠상에 살매 흐르 지나면 무덤이 흐리가 갓
잡고 흐리가 지나면 무덤이 흐리가 갓가 오나 날마
다 무덤을 향하야 가면 엇지 리 년을 기 두리 고 공

부시작을아니호리오쇼그렐지라도죽을날을미
리알면오히려후환환이호려나위죽날을미리
알길이업스니사름이병병을엇어생을내지못호
면류칠일만베도죽고바람을마자급히막히면경
익스이에도죽고음식을먹다가잘못먹으면죽기
드호그물과불과범과비암이다사름을급급히죽
게호나이러두시죽는일을너도어노날아니보며
어노써아니당호줄을알아장리롤기두리리오세
상사름이히어셔도죽고어려셔도죽고악호로도
죽고착호로도죽어사름죽엇다소문이날마다내

하편

귀에 들리나니 나는 흠노 죽지 아니함을 노아도 하였
지 남 죽은 소문은 내 귀에 들니 그러나 죽은 소문은 남
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라 죽은 남을 남의 명함을 길에
업스니 사름이 한번 죽으며 정익수에 현주—무
궁무진한 화복을 환단하시니 지라 현하에 이러하
무쳐 온일이 다시 업거논 일평 살년지 모르니 리년
을 기두리니 슬프다 오날이 흐시킵에 죽은 사름이
얼마 되니 죽음을 모르니 그 중에 리년을 기두리다가
다 옥에 들어간이가 무수함을 지니 너도 리년이 라 말
을 다 시 말지 어다 사름이 과천 현하면 현주—고

죄사 후 심을 허락 하여 제시나 장리를 지누리고 밀
외여가 논 사람의 제 논 후 날을 허락 지 아니 하시
나 오 날 브터 시작 하여 밀 외여 쾡 제 할 지 말 지 여 다

丁若鐘著

主教要上日二卷

以京城主教グスタフ・ミューテル氏
藏本寫之

昭和五年八月十九日

於平塚 富居